

3235
3835L
V.4 C.2

南北高位當局者會談

第4次 豫備會談 會議錄

1989. 11.



885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85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1.15 (水) 10:00 ~ 12:17

나. 場 所 : 板門店 北側 地域 「統一閣」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首席代表〉</p> <p>宋 漢 虎 (國土統一院 次官)</p>	<p>〈團 長〉</p> <p>백 남 준 (정무원 참사)</p>
<p>〈代 表〉</p> <p>金 三 勳 (外務部 情報文化局長)</p> <p>朴 鍾 權 (國防部 合同參謀本部 局長)</p> <p>廉 弘 喆 (大統領 秘書室 政務秘書官)</p> <p>金 保 鉉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 審議官)</p>	<p>〈代 表〉</p> <p>유 성 철 (정무원 실장)</p> <p>최 우 진 (외교부 국장)</p> <p>최 성 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p> <p>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p>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 代表團 入場 및 人事交換〉

北(백남준) : 記者선생들한테 服務해 줘야 되겠구만.

南(宋漢虎) : 服務입니까? 우리는 奉仕…….

(사진기자 촬영)

服務끝났습니다. 신덕 약수예요?

이것 가지고 모자랄텐데, 통까지 아주 갖다 놓으세요.

北(백남준) : 準備를 많이 했어요.

南(宋漢虎) : 날씨가 오늘 아주 근래 보기 드물게 맑고 좋네요.

北(백남준) : 금년 가을은 특이하게 좋습니다.

南(宋漢虎) : 氣象報道에 의하면 굉장히 오늘 霧下로 내려가고 추울거라고 그랬는데 괜찮네요, 오늘.

北(백남준) : 금년도 가을은 다른 해보다 좀 상당히 따뜻하죠.

南(宋漢虎) : 예, 따뜻하죠.

北(백남준) : 얼마전에 金剛山에, 江原道에 내려갔다 왔어요. 가니까 날씨
가 좋다니니까 단풍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 만폭동 있죠. 거기
에 그 봉래 楊士彥이 그 바위에 썼는데 봉래, 풍악, 만폭동이다. 정
말 金剛山 가운데서도 만폭동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楊士彥은 원
래 아주 호방한 기개를 간직한 詩人이고 열렬한 그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왜 詩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
르고 메만 높다 하더라」

南(宋漢虎) : 오늘 詩的으로 나가니까 오늘 會談 잘 되겠구만.

北(백남준) : 왜 아마 楊士彥이 지금 살아 있으면, 거 뭐 「分斷의 障壁이 제 아무리 높다한들 아 民族이 제 마음먹고 힘을 합치면 못 허물리 없으리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南(宋漢虎) : 거, 뭐 金剛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西山大師가 말씀하시길 金剛山은 빼어나기는 한데 웅장하지 못하다. 그리고 智理山은 웅장한데 빼어나지 못하다. 대신에 묘향산은 아주 빼어도 나고 웅장도 하다고 아마 西山大師께서는 묘향산을 좋아했던것 같아요 그런데 金剛山은 사실상 우리가 옛날 신라시대에 우리 화랑들이 護國訓練을 해가지고 쪽가 가지고 마지막 到着地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祭祀도 지내고 노래와 춤도 추고 뭐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유명한 산인데 옛날 解放되기 전에 거기에 절이 아마 한 40여개가 있다, 그렇게 돼 있었고 거기에 西山大師나 泗溟大師의 陵, 遺蹟地도 있고 麻衣太子의 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있습니까?

北(백남준) : 다 있습니다. 다 그대로 保存되어 있고 그것도 큰 管理所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保存하고 있습니다.

南(宋漢虎) : 아주 잘 돼 있겠구만요.

北(김영철) : 그래요. 세상사람들이 지리산은 몰라도 金剛山 하면 朝鮮을 아는 것 같아요.

南(宋漢虎) : 金剛산이야 韓民族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名山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側도 金剛山 한번 구경하고 싶고 또 그럴려면 자연스럽게 南北間에 이렇게 開放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요새 사실상 다 알다시피 우리 言論이라든가 혹은 世界의 모든 言論들이 지난 9日날 東獨政府가 베를린 障壁을 비롯해서 東獨의 모든 국경을 開放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報道를 하고 또 西獨으로 移動하는 東獨의 여러사람들의 移動을 아주 크게 歡迎하고 報道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東獨의 官營通信이라고 할 수 있는 ADN 通信을 보면은 그런 開放措置가 이루어진 다음에 벌써 500萬名에 대해서 西獨行 비자를 發給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만 하더라도 300萬名の 東獨人들이 西獨을 다녀왔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東베를린의 시민들이 말이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한 生面否知의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춤추고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장면들이 報道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쇠망치, 도끼등을 들고서 베를린 障壁을 부수는 이런 장면들이 아주 다 放映되었는데 그 장면을 본 우리 國民들도 자 이렇게 世界的으로 많이 開放과 改革의 바람이 불고 또 國際情勢가 그런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韓半島만 말이지 이런 冷戰의 孤島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도 이제 뭔가 西獨처럼 離散家族을 비롯해서 모든 國民들이 자유롭게 往來하고 그러다보면은 分斷의 苦衷이라든가 不便등이 많이 解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가 다 努力하고, 우리 오늘 사실 推進하고 있는 이 高位當局者會談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좀 成事시켜서 이제 우리 南北의 住民들이 자유롭게 좀 往來할 수 있도록 通信이라든가 혹은 通行에 관한 一般 合意書 같은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해서 이것을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백남준) : 報道 보니까 自由開放措置 取하기 전에, 전에 넘어간 사람 가운데서 거기 定着하려고 간 사람은 100% 였는데 自由開放措置 取한 후에 넘어간 사람 가운데 定着한 사람은 0.2% 예요.

南(宋漢虎) : 그래 그래 한 萬名, 萬餘名 정도가 …….

北(백남준) : 그저, 이 南北關係도 그저 開放만 하면 됩니다.

南(宋漢虎) : 그래.

北(백남준) : 한번 그쪽에서 開放할 의지가 있다면 實踐을 한번 보여야.

南(宋漢虎) :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政府當局間에 開放할 수 있도록 모두 서로 協約을 맺자 이거지.

北(백남준) : 軍事分界線도 없애버리자, 다 門 다 열어놓자, 이거 또 우리는 門 다 열어 놔단 말이야. 담을 쌓고 요거 가로막는 거야 그 쪽이지 뭐.

(一同 웃음)

그래서 이거 會談 빨리 잘해서, 그래서 그거 우리 宋先生도 왔다 金剛山에 같이 同行하자. 묘향산에도 가고,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고 가고 싶은 사람은 다가고….

南(宋漢虎) :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우리 백선생 지난번에 우리 3次豫備會談때 우리 地域에 왔을때 우리 記者들이 하나 찍은건데, 우리 백선생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아주 美男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이거 백선생한테 드리니까….

北(백남준) :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뭐 記念이 되겠어요.

南(宋漢虎) :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北(백남준) : 그런데 난 이런 생각 못했구만.

거 또 나도 이렇게 해서 宋先生한테 膳物을 해야 되는건데.

南(宋漢虎) : 요 다음 機會 또 있을테니까.

北(백남준) : 아, 그래 감사합니다.

南(宋漢虎) : 자, 그럼 뭐.

北(백남준) : 예 자리를 좀, 記者 先生들 우리 便利 봐 주시죠.

北(최성익) : 廉先生, 朴先生이랑은 통일각에 처음이죠?

南(朴鍾權) : 예 그렇습니다. 와 보니까 아주…….

北(최성익) : 도중에 乘車해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원래 우리가 통일각을 지을때 和解하고 團合하고 統一하자고 지었는데 선생님들 아주 統一의 길에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北(백남준) : 우리 선생님들 자 좀 자리 정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天才少女, 少女畫家 오은별이.

南(宋漢虎) : 우리?

北(백남준) : 아니, 아니 우리쪽에

南(宋漢虎) : 아, 그래요?

北(백남준) : 오은별이라고. 그쪽의 出版物에도 났어요.

南(宋漢虎) : 나, 아직 듣지 못했는데.

北(백남준) : 그런데 87年度에 모스크바에서 國際 靑少年 美術作品 懸賞 展覽會가 있었다구.

거기 60個 나라에서 參加했는데 3萬名이 參加했는데 거기서 당당히 最優秀賞을 받았어요. 지금 아홉살인데,

南(宋漢虎) : 少女예요?

北(백남준) : 少女, 여자, 여자예요. 오은별.

그런데 세상부터 平壤美術大學에서 秀才教育을 받았거든.

아버지는 美術家인데.

南(宋漢虎) : 아, 그렇구만 우리 사실 韓民族이야 많이…….

北(최성익) : 「말」이라고 하는 잡지…….

南(宋漢虎) : 아, 나 읽어보지 않았어.

北(백남준) : 그런데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統一門을 그렸단 말이야.

그 아이가 일기에 쓴 겁니다. 統一門을 그렸는데 여기다가 자기 그런 낱자를 적어 놓자고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어 놓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反問을 했거든, 왜 아버지 써 놓지 말랍니까? 아직은 統一 못됐지 않냐 統一된 날 거기에다가 年月日 써 놓어라. 그저 우리 온 民族이 다 關心事인데 오늘은 좀 能率的으로 좀 해 봅시다.

南(宋漢虎) : 그렇게 합시다.

南(金三勳) : 내년 봄에 인제 金剛山 구경시켜 주시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도 가보는…….

北(김영철) : 그쪽에서 誠意를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아마 問題가 決定될 것 같습니다.

南(金三勳) : 아, 우리는 뭐 다 돼 있어요.

南(宋漢虎) : 자, 오늘 날씨도 좋고…….

아 그런데 이자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지 뭐 이거 節次問題 가지고 말이야 1년내내 할거요?

北(최성익) : 어제 내려왔어요.

南(廉弘喆) : 몇시간 걸려요?

北(최성익) : 다섯시간 걸려요. 高速道路가 되면…….

南(金三勳) : 高速道路가 내년에 돼죠?

北(최성익) : 지금 튼튼히 다지느라고.

잘 다져야 되겠는데 앞으로 統一의 사절들이 많이 당겨야 되겠는데…….

南(廉弘喆) : 本會談 되기 전에 高速道路가 돼 가지고.

南(宋漢虎) : 자, 그러면 내가 먼저 할까요?

北(백남준) : 먼저 하세요.

南(宋漢虎) : 그럼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側 첫 發言>

백남준 團長!

그리고 北側代表 여러분!

오늘 우리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第4次 豫備會談을 갖게 됩니다.

나는 貴側이 지난번 第3次 豫備會談 『基本發言』에서 『모처럼 마련된 우리의 會談이 空轉과 中斷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이미 本會談이 열리고 緩和와 統一을 위한 길에서 劃期的인 前進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쉬움과 期待를 表明한 사실에 注目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貴側이 『言語와 피부색을 달리하고 있는 나라와 民族들 사이에서도 지난날의 反目과 對決關係를 끝내고 서로 和解하고 共同的 繁榮을 追求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南北間

의 非正常的인 事態를 끝장내야 하며 낡은 對決時代의 遺物을 清算하고 同族으로서 和解하고 團合하는 새 時代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음을 想起하고자 합니다.

나는 貴側의 이러한 『基本發言』의 內容이 南北間의 敵對와 對決關係를 조속히 清算하고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나갈 것을 強調해 온 우리측의 主張과 基本的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留意하고 있습니다.

貴側도 말한바와 같이 이제 南北 雙方은 하루빨리 對決의 時代를 清算하고 진정한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나가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對決의 時代를 清算하고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나감으로써 民族的 繁榮을 이룩하고 당당한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登場하는 것은 南과 北을 가릴 것 없이 7千萬 은 거래의 한결같은 所望입니다.

이러한 民族的 輿望에 副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權限과 責任을 委任받고 있는 雙方當局이 現實認定과 相互尊重의 기초위에서 關係改善을 도모해야 하며 秩序있는 相互 社會開放을 통하여 和解와 協力を 다져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南北雙方이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高位當局者會談을 開催하는데 서로 意見을 같이 하고 이를 準備하기 위한 豫備會談을 진행해 온 것도 이와같은 趣旨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豫備會談은 보다 建設的으로 그리고 成果있게 推進되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豫備會談에 맡겨진 基本使命에 맞게 本會談 開催를 위한 節次問題討議에 誠意를 다해야 마땅할 것입니

다.

나는 지난 세 차례 會談이 會談外的인 問題들로 인해 空轉된데 대해 遺憾을 표시하며 더이상 會談外的인 문제들로 인해 論爭을 벌임으로써 會談의 前進를 가로막고 會談雰圍氣를 惡化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일을 教訓삼아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雙方間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早速한 時日內에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가 곧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正常化하는 획기적인 契機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이제 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節次問題에 대해서 우리측 立場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우선 지난번 第3次 豫備會談에서 貴側이 第1次 本會談 場所를 서울로 하는데 同意한데 대해 이를 歡迎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雙方은 本會談 開催와 관련하여 本會談을 서울·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하며 第1次 本會談은 豫備會談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갖기로 하고 記者團 數는 각기 50명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완전히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나는 本會談의 成事が 가까운 時日內에 가능할 것이라는 確信을 가지면서 먼저 雙方間에 아직도 見解差異가 있는 本會談의 名稱, 本會談의 議題 그리고 本會談 代表團의 構成問題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本會談의 名稱은 우리側이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

總理會談』으로 하자고 主張하고 있는데 대하여 貴側은 『雙方總理를 수
석대표로 하는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은 本會談은 南北關係에서 提起되는 全般的 問
제를 討議하기 위한 會談이 아니라 南北間의 當면한 政治軍事的 對決
狀態를 解決하는 것을 基本使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軍事會談이
란 名稱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貴側과 전혀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貴側에서 主
張하는 것처럼 南北의 總理들은 政治 軍事問題뿐만 아니라 南北이 當
면한 諸般 懸案問題들을 幅넓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本會談에는 雙方總理들과 함께 長次官級の 政府高位人士들, 貴側으로서
는 部長 또는 副部長級の 當局 高位人士들이 代表로 각각 參加할 것
으로 豫見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會談에서는 南北間의 特定問題만을 한정해서 討議할 것이 아
니라 雙方關係를 改善하고 發展시키는 문제들을 廣範하게 討議해야 하
며 이처럼 全般的인 問題들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도 當연한 일인 것
입니다.

또한 나는 貴側이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으로 하면 經濟·體
育·赤十字 등 다른 部門會談들과의 關係에서 混亂이 생길 수 있고 南
北關係에서 提起되는 여러 分野의 문제들을 이것저것 다 다루는 會談
으로 混同될 수 있다고 한데 대해서도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은 經濟·體育·人道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活性化하고 支援·保障하는 制度的 기틀을 마련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이들 會談의 進展에 肯定的인 役割을 遂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貴側이 統一3原則과 함께 中傷·誹謗中止, 武裝挑發禁止, 多方面的인 諸般交流實施, 赤十字會談의 支援, 直通電話架設, 調節委員會構成 등 南北間의 廣範한 關係改善 문제들을 約束한 7.4 南北共同聲明의 內容을 잘 記憶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南北의 總理들과 長次官級의 高位人士들이 만나는 本會談에서는 이처럼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全般的인 문제들이 반드시 包括的으로 討議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經濟, 體育, 赤十字 등 여러 다른 會談들의 進行도 促進시킬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側이 本會談의 名稱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고 主張하고 있는 理由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는 雙方이 이미 『南北總理會談』 開催에 意見을 같이 했던 先例가 있었던 事實을 想起시키면서 우리측 提議에 同意해 올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本會談 議題問題입니다.

나는 第1次 豫備會談때에 ① 相互 誹謗·中傷中止 問題 ② 相互 尊重 및 不干涉 問題 ③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實施 問題 ④ 軍事的 信賴構築 問題 ⑤ 南北頂上會談 開催 問題 ⑥ 기타 雙方이 提起하는 問題 등 6個項을 本會談 議題로 採擇할 것을 提議하고 第2次, 第3次 豫備會談에서도 強調해 왔으며 이러한 立場에는 지금도 變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6個項 議題속에 貴側이 主張하고 있는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들도 충분히 包含되어 있으며 설사 貴側 主張이 모두

反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第6項 기타 雙方이 提起하는 問題』 속에서 얼마든지 討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이 6個項 議題가 南北雙方의 主張을 다같이 反映한 매우 合理的인 議題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議題問題를 놓고 한없이 論爭을 되풀이 함으로써 온 겨레가 苦待하고 있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의 開催를 언제까지나 遲延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立場에서 나는 우리측 6個項 議題와 貴側이 議題를 包括적으로 定하자는 主張을 고려한 單一議題로서 『南北間의 다각적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 問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南北間의 다각적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 問題』를 修正議題로 提議하는 바입니다.

우리측의 이 修正提議는 貴側의 主張을 거의 그대로 受容한 것으로서 지난 第3次 豫備會談에서 貴側이 貴側 議題속에 우리측의 細部化된 議題들을 모두 受容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留意한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本會談을 조속히 成事시키고자 하는 우리側의 誠意있는 立場을 反映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함께 交流・協力過程에서 提起되는 通行・通信・通商 등의 諸問題를 制度的으로 해결하고 定着시켜야겠다는 意志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本會談의 目的과도 符合되는 合理的인 議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는 貴側이 우리측의 새로운 修正提議를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이 있기를 期待함

니다.

그 다음은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입니다.

이 問題는 이미 지난번 會談에서 貴側이 隨行員 數를 30名으로 修正提議함으로써 일부 接近된 점도 있으나 軍代表의 數를 1명으로 하느냐 2명으로 하느냐 하는 問題에서 아직도 見解差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軍代表問題에 대해 지난번에도 主張한 바와 같이 『軍實權者』라는 막연한 表現을 쓸 것이 아니라 『軍參謀總長級』(貴側 表現으로는 『軍總參謀長級』)이라고 이렇게 그 級을 明示해야 서로 불필요한 混亂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數도 우리측으로서는 1명이면 充分하다고 봅니다.

우리측으로서는 『參謀總長級』의 軍代表 1명이면 얼마든지 중요한 軍事問題들을 責任지고 討議할 수 있다는 立場입니다.

한편 隨行員 數 問題에서 貴側이 지난번 第3次 會談에서 30名을 折衷案으로 내놓았으나 雙方總理들이 만나는 重要的 會談인만큼 우리는 이를 充實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數가 不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 問題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30名内外』로 合意하여 약간의 融通性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상에서 서로간에 見解差異가 있는 部分에 대한 우리측 意見を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금년 2월부터 세차례의 豫備會談을 進行해 오는 동안 서로간

에 『見解差異가 있는 部分』 보다는 『意見이 接近되는 部分』이 더 많다는 사실에 注目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雙方이 共通點을 넓혀나가고 意見差異가 있는 部分에 대해서는 互讓의 立場에서 協議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確信합니다.

끝으로 나는 本會談의 細部運營節次에 대한 우리측 立場을 整理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해 두고자 합니다.

1. 本會談 形式

雙方合意制의 代表會談 形式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雙方總理間의 單獨會談도 할 수 있다.

2. 合意書 採擇

雙方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文書로 作成하여 각기 署名한 文書を 1통씩 交換한다.

3. 信任狀 交換

雙方 會談代表는 자기측 當局 最高責任者가 發給한 信任狀을 相互 交換한다.

4. 會談記錄

雙方은 會談內容을 速記・錄音・錄畫 등 각기 便利한대로 記錄한다.

5. 會談報道

각기 便利한대로 하며 雙方 合意가 있을 경우 合意內容을 共同으로 作成하여 報道토록 한다.

6. 會談場 標識 및 施設

가. 깃발이나 特別한 標識를 使用하지 않으며, 會議用 卓子は 장방형의 卓子를 使用한다.

나. 招請側은 會談場에서 相對側 記者團이 自己側에 즉시 連絡할 수 있는 通信施設과 모니터用 閉鎖回路 (CCTV) 中繼線을 設置한다.

7. 會談公開與否

本會談進行은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雙方 合意에 따라 公開할 수 있다.

8. 身邊安全保障

가. 招請側은 相對側의 代表團과 記者團의 往來와 滯留期間中 그들의 身邊安全과 無事歸還을 保障한다.

나. 招請側은 相對側 代表團과 記者團의 往來와 滯留期間中 그들의 文書, 通信·事務用器機, 寫眞, 필름, 錄音 및 錄畫테이프, 取材手帖, 報道資料 및 기타 필요한 携帶品에 대한 不可侵을 保障한다.

다. 招請側은 本會談을 위하여 自己側에 오는 相對側 代表團과 記者團의 滯留期間中 身邊과 활동상의 安全 및 全員 無事歸還을 保障하는 身邊安全保障覺書를 往來 7日前에 板門店에서 相對側에 手交하며 雙方은 이 事實을 發表한다.

9. 代表團 標識 및 證明書 所持

가. 雙方 代表團과 記者團은 자기측을 表示하는 內容의 標識를 附着하고 각기 總理가 發行하는 身分證明書を 所持한다.

나. 記者는 별도의 기자완장을 着用하여야 한다.

10. 板門店 通過節次

가.名單通報

- ① 雙方은 本會談에 參加할 자기측 代表・隨行員 및 記者들의 名單을 자기측 總理의 確認署名을 받아 相對側 地域 訪問 3日前에 相對側에 手交한다.
- ② 名單에는 姓名・性別・職責을 記載하며 寫眞을 附着한다.
- ③ 名單手交以後 變動事項은 直通電話로 通知하고 板門店 連絡官을 통해 이를 文書로 傳達한다.

나. 通過地點

雙方間的 板門店 通過地點은 軍事分界線上에 있는 招請側의 管轄建築物로 한다.

다. 通過人員 確認

- ① 招請側은 板門店 通過 3日前에 手交한 相對側 名單에 의거하여 相對側 人員들의 身分證明書を 對照・確認한 후 相對側 人員들을 接受하며 板門店 連絡代表가 署名한 接受된 人員의 名單을 相對側에 手交한다.
- ② 歸還時에는 接受된 人員의 名單에 의거하여 相互 對照・確認한다.

11. 記者의 取材活動

雙方은 相對側 滯留期間中 記者들의 活動을 保障하며, 南北間的 信賴와 理解增進에 기여하는 方向에서 報道의 正確성과 公正性を 遵守토록 한다.

12. 便宜提供

招請側은 相對側의 代表團과 記者團의 滯留期間中 宿食・交通・通信・醫療・報道 및 기타 필요한 일체의 便宜를 提供한다.

13. 雙方은 既 設置되어 있는 南北赤十字 直通電話線을 利用하되 필요할 경우 雙方 合意아래 별도의 電話線을 架設할 수 있다.

14. 滯留日程

招請側은 상대측이 자기측 地域 訪問 7日前에 滯留日程表를 相對側에 手交하고 滯留日程을 相互 協議하여 決定한다.

15. 儀 典

儀典問題는 雙方 實務代表間의 별도 接觸을 통해 協議・解決한다.

16. 其 他

가. 雙方은 相對側 滯留期間中에는 招請側의 案内와 秩序에 따르도록 한다.

나. 雙方은 相對側 滯留期間中 1日 2回의 行낭을 運營한다.

나는 以上과 같은 細部運營節次에 대한 우리측 提議內容이 貴側에서 使用하는 語句나 用語와는 差異나는 점이 없지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대체로 그 意味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語句나 用語 또는 意味上 差異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 協議・調整하여 상호 共通되는 것을 合意文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會談을 한걸음 더 前進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以上에서 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側의 意見を 말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第4次 豫備會談에서는 雙方 主張의 共通點을 찾아 하나하나 合意를 이룩해 나가는 建設的이고 生産的인 對話가 이루어지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南(宋漢虎) : 물 좀 더 주세요. 아주 통으로 하나 가져다 놔요.

北(백남준) : 宋先生님 혼자 밖에는 신덕수 좋아하시는 분이 없구만.

南(宋漢虎) : 이거, 참 좋아. 이거 너무 많이 마시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소변이 빨리 나와요.

나도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 얘기 안했나? 우리 그 事務室에 약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그 삼청동에 약수가 두곳이 있는데 거기서 쭉 떠다먹고 집에서 계속해서 家族들과 같이 마시는데 이거 참 좋아.

北(백남준) : 平壤도 약수가. 나는데 시내에 여러군데 있어요. 性分分析하니까 신덕수 보단 못하고.

약수들도 性分分析해 보면 어떤것은 좋은게 있는가 하면 어떤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南(宋漢虎) : 이거 뭐예요? 이거 뭐가? 이거 생강차 아니예요? 아, 인삼차예요? 생강차보다 이거 좋을것 같애.

北(백남준) : 宋先生님 제말씀…….

〈北側 基本發言〉

南側 代表여러분!

오늘 우리는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豫備會談을 네 번째로 가지게 됩니다.

나는 먼저 內外人民들의 關心과 耳目이 集中된 가운데 오늘의 豫備會談을 위하여 우리側 地域 《統一閣》에 온 南側 代表 여러분을 歡

迎합니다.

무려 200日以上이나 中斷되어 겨레에게 실망을 주었던 우리의 會談이 再開되어 北과 南의 代表들이 이렇게 또 다시 마주앉게 된 것은 對決이 아니라 對話를, 緊張이 아니라 緩和를, 分裂이 아니라 統一을 바라는 民族의 念願과 大세의 흐름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지금 온 겨레는 이 豫備會談이 우여곡절없이 진척되어 北과 南사이의 尖銳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會談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再開되어 얼마전에 진행된 第3次 豫備會談은 論爭과 對決로 하여 한걸음도 前進하지 못하였으며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대한 새로운 希望과 期待로 부풀었던 겨레에게 또다시 실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豫備會談의 곡절많은 과거와 北과 南이 함께 열어나가야 할 會談의 전도를 놓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우리의 對話가 論爭과 對決의 마당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려는 念願에서 마련된 우리의 會談은 緩和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對決을 더욱더 격화시키는 결과를 招來하였습니다.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의 새로운 局面을 열어나갈 중대한 使命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이 非正常的인 事態를 어떻게 許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北과 南사이의 尖

銳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緩和하기 위한 問題의 解決을 더 이상 지체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시기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것은 民族的 和解와 團합을 圖謀하고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促進하는데서 必須 不可決의 問題이며 순간도 그 解決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課業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民族들 사이에서도 지난날의 對決觀念에서 벗어나 和解하는 길로 나가고 있고 오래동안 未決로 남아있던 世界 여러 地域의 紛爭問題들이 平和的으로 解決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한피줄을 나눈 슬기로운 우리 겨레가 서로 반목질시하고 항시적인 戰爭危險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民族的 不幸이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現實은 우리들이 時代錯誤의인 낡은 對決觀念에서 벗어나 民族을 우에 놓고 和解와 團합을 이룩해 나갈것을 絶실히 要求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一方의 體制와 理念에 집착하여 閥론을박하면서 우리의 豫備會談이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게 해서 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지난 3次 豫備會談때 文益煥牧師와 林秀卿 學生, 文圭鉉神父問題와 관련한 原則的인 立場을 밝혔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期待와는 달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問題들에 肯定的인 反應이 없는데 대해서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南側 代表여러분!

이제 來日이면 우리가 北과 南사이의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發起하고 貴側에 첫便紙를 보낸 때

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옹근 한해가 지나도록 한걸음도 前進하지 못하고 있는 이 會談이 새출발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確信하면서 實務節次問題와 관련한 우리의 立場에 대해서 言及하려고 합니다.

貴側도 아다싶이 우리는 지난 3次會談때 雙方 實務節次案 가운데서 主張이 엇갈리는 일부 問題들에 대하여 讓步하고 아량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第1次 本會談場所를 會談發起側인 平壤으로 하는 것이 順理이지만 貴側에 讓步하여 서울로 할 用意가 있다는 立場을 시사했고 또 오늘 貴側에서, 貴側의 發言에서는 그를 歡迎했습니다.

또 會談 隨員數도 20名이면 알맞춤하지만 貴側이 40名을 主張하고 있는 것을 考慮하여 折衷하여 30名으로 할데 대한 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이 豫備會談을 진전시키고 早速한 시일내에 本會談을 탄생시킴으로써 겨레에게 기쁨과 새로운 希望을 안겨주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誠意있는 努力의 뚜렷한 表示입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讓步로 해서 本會談場所問題와 會談隨員數問題에서 雙方사이에 이미 會談場所問題는 合意를 이룩했고 기타 이제 會談隨員數問題에서도 貴側이 오늘 30名內外로 할데 대한 提案을 넘으로써 그것을 合意할 수 있는 現實的 可能性이 造成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北南雙方이 互相理解와 互相讓步의 精神에서 問題討議에 임한다면 서로 差異있는 다른 問題들도 合意를 이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雙方 提案에서 差異있는 本會談의 名稱과 議題, 代表團構成에서 軍代表問題와 隨員數問題와 관련한 우리의 立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會談名稱을 《高位級政治軍事會談》으로 하겠는가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으로 하겠는가, 어느 것이 더 合理的이고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會談名稱은 어디까지나 會談의 目的과 使命에 符合되게 設定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本會談은 北南關係 全般問題를 다루는 會談이 아니라 北과 南사이의 當面한 政治的 및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使命으로 하고 있습니다.

北과 南이 오늘과 같이 政治와 軍事分野에서 對決하고 있는 狀態에서는 北南사이에 오래동안 쌓여온 誤解와 不信을 가질수 없고 協力과 交流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統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우기 北과 南이 날을 따라 격화되고 있는 軍事的 對決狀態를 緩和에로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南朝鮮에서 核武器로 武裝한 美軍이 戰爭挑發行爲를 끊임없이 進行하는 조건에서 우리 民族은 돌이킬 수 없는 核戰爭의 참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는 當面하게 北南사이에 서 解決해야할 초미의 問題이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問題입니다.

사실상 이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北南關係를 改善하고 統一問題를 解決하는데서 아무런 肯定的 措置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北과 南사이의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會談이 發起되었던 것이며 오늘의 이 豫備會談도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열리게 될 本會談의 名稱을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會談名稱을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으로 할데 대한 貴側의 案은 本會談의 根本使命과 目的이 反映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貴側의 會談名稱대로 하면 이 會談이 무엇을 解決하는 會談인지 明白하지 못합니다.

會談名稱을 정함에 있어서 分裂된 나라를 統一하려는 겨레의 念願이 그 어느때보다 強烈해진 現實發展의 要求도 반드시 考慮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이라는 貴側의 會談名稱에는 우리 人民의 統一意志가 잘 反映되어 있지 못하며 나라와 나라사이의 會談에서 일반적으로 呼稱되는 名稱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高位級政治軍事會談》이라는 名稱은 이런 側面들까지도 신중히 考慮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本會談名稱을 《高位級政治軍事會談》으로 定立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會談議程問題인데, 이 會談議程問題와 관련해서는 오늘 貴側 發言에서 包括적인 議題로 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음으로써 결국 이 議程, 會談議程選定問題에 있어서는 前進적인 그런 提案이라고 생각하고 그 議程形式에 대해서는 우리가 歡迎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會談名稱은 名稱에서 그쪽에서 「南北間的 多각적인 交流 協力과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로 할데 대한 이런 提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議程에 貴側이 담으려고 하는 北南間의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도 包含할 것을 豫見하고 있는 이런 條件에서 우리側 提案대로 「北과 南사이의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할 것을 다시 한번 主張합니다.

셋째로, 會談代表團 構成에서 軍代表를 어떤 級으로 몇명 包含 시키겠는가 하는 問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련하게 될 本會談의 政治軍事會談으로서의 性格을 살리기 위해서 代表團에 軍實權者가 2名정도 包含되어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貴側이 軍事問題討議를 回避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軍實權者를 2名정도 包含시킬데 대한 우리의 提案에 同意하지 못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軍代表의 級數問題와 관련하여서는 雙方의 軍事指揮體系가 다른 實情에서 《軍實權者》로 정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봅니다.

이상 實務節次問題討議와 관련한 우리側의 見解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좋은 霧圍氣속에서 實務節次問題들에 대한 討議를 進行하여 훌륭한 合意를 이룩함으로써 이 會談을 지켜보고 있는 内外 人民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기를 希望합니다.

감사합니다.

南(宋漢虎) : 수고 했습니다.

이제 뭐 雙方의 發言을 보니까 이제야 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北(백남준) : 원래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건데.

南(宋漢虎) :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세 차례 會談外的인 問題로 인해 가지고 우리 會談이 空轉됐는데 그 空轉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좀 진지하게 모든 誠意를 다해서 이 節次問題에 妥結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진지한 努力을 하면은 내가 볼때는 오늘 다 妥結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다만 이제 議題 關係에 있어서…….

北(백남준) : 그런 希望은 같습니다.

南(宋漢虎) : 다만 이제 議題關係에 있어서……,

北(백남준) : 그저 오늘 이거 年內로 本會談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南(宋漢虎) : 그러면 좋겠는데…….

자, 그럼 節次問題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會談 名稱부터 한번 서로 論議해 볼까요?

北(백남준) : 예,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雙方이 다 같은데, 우리가 차이나는 것이 會談名稱이다, 그 다음에 의정이다, 그 다음에 代表團 構成問題다, 이런 점에서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우선 本會談 1次會議 場所問題는 서울로?

南(宋漢虎) : 예, 그건 合意됐고.

北(백남준) : 이걸, 宋先生! 우리 대단한 讓步입니다, (場內웃음) 원래 會談發起側으로 보면 우리데, 원래야 平壤에서 1次會談을 해야 순리지 뭐.

대단한 양보인데…….

南(宋漢虎) : 하여간 뭐 , 거기서 항상 통크게 나오니까 . (場內웃음)

北(백남준) : 그래서, 이렇게 互相 讓步하고 尊重하고 誠意를 發揮하면 될 것 같아요 .

南(宋漢虎) : 오늘 백선생이 통크게 좀더 여러가지로 折衷案을 내 가지고 妥結하면 좋겠네…….

北(백남준) : 그리고 뭐 비슷한것 있는데. 그 저 , 隨員數, 隨員數 무슨 案에 우리는 그저 이거 20名이면 充分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宋先生이 40名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린 20名으로써 充分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30名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提起하는데, 거 무슨 30名內外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相互主義 原則에서 30名으로 그것도 누르자.

南(宋漢虎) : 相互主義 原則에서?

北(백남준) : 예 . 아 , 똑같이 그쪽에서 隨員이 30名이 나오고 우리도 30名이 나와야지 . 그쪽은 隨員이 이렇게 배가 부르고 우리 隨員은 또 수가 작고 뭐 이렇게 하면 , 그러니까…….

南(宋漢虎) : 내가 지금 왜 그렇게 30名 內外라고 그러느냐면, 사실상 우리가 40名을 主張하지 않았어요?

北(백남준) : 예 .

南(宋漢虎) : 내가 실제로 經驗을 해 봤었어요 .

저, 故鄉訪問團 갔을때 내가 平壤을 가 가지고 그때 隨員이, 隨行員數가 20名이었던 말이요 . 그러다 보니까 우리 支援人員들이 가서 아주 고생들을 무척 하더라구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그러다 보니까 支援業務도 제대로 완벽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굳이 뭐 그렇게 人員을 制限을 해 가지고 고생시킨다든가, 支援業務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40명으로 하자고 했고, 그런데 지난번에 貴側에서 3次會談때 30명을 하자고 또 折衷案을 냈으니까, 그걸 또 내가 그냥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나도 讓步를 해서 30名 内外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 4名 정도의 融通性을 두어 가지고 서로 便利한데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또 이거 가지고 또 時間 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北(김영철) : 30명으로 하지요. 좋지요?

南(宋漢虎) : 그러지 말라우요. 그러지 말고, 한 너더덜명 좀 融通性을 두자우요.

南(金三勳) : 可能하면 많이 왔다갔다 하는게 좋은게 아닙니까?

北(최우진) : 代表 1人當 隨員 4名씩입니다. 그래서 代表 1人當 4名이면 充分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代表 5名에 現在 隨員 4名, 결국 30名만해도 代表 1人當 隨員 4名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團長한테는 30名이라면은 2名 더 주어서 團長한테는 隨員 6名,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당 4名, 充分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꼭 눌러 놓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北(백남준) : 그래서 故鄉訪問團 때 그 實例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마주 앉아서 다 뭐인가 하면 그래도 高位級政治人들이 앉아서 會談을 하는데, 무슨 故鄉訪問團, 그때 그 藝術團처럼 그렇게 複雜하겠는 가요?

南(宋漢虎): 오히려, 그 赤十字會談이라든가 혹은 故鄉訪問團들과는 다르지요. 여기는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거 級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豫見하는 거는, 考慮하고 있는거는 長官 또는 次官 級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北(백남준): 아마, 그거는 概念上에서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南(宋漢虎): 글썄, 그런분들이 다 가니까 그런 會談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蹉跌이 없고 不便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은 30名을 가지고서는 좀 모자란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35名으로 할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뭐 5名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또 그것도 우습고 그래서 30名內外로 해 가지고 서로 融通性을 약간씩 한 4-5名程度씩 두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에요.

北(백남준): 예. 예.

北(최성익): 首席代表님! 나도 그때 서울에 갔었는데, 내가 隨員으로 따라 갔었습니다. 20名이면 充分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 이거 뭐 같은 민족끼리 다 對話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便宜를 다 提供해 주고 問題로 될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名에 10名을 더해서 30名으로 提起를 했어요.

南(廉弘喆): 아 그러니까, 充分해도 한명이라도 더 가면 좋은 거지요 뭐. 많을 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좋은 機會에 한명이라도 더가는게 좋은거

지요!

南(朴鍾權): 가능한 많이 往來하는 것이 좋지않겠어요?

北(김영철): 首席代表 인상을 보니까 30名으로 하자고 누를 것 같은데.

南(宋漢虎): 아니, 난 35名이에요. 내 主張은 35名인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아, 그거 뭐 內外로 하자 그런 거예요.

北(김영철): 隨員數를 20名으로 우리는 主張했구요.

宋先生은 40名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쪽에 接近해서 30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誠意입니다. 會談에서는 誠意라는게 일단 表現돼야 됩니다. 그래도 互相性의 原則에서 이렇게 돼야 됩지요. 30名으로 합시다.

南(金保鉉): 아, 거 隨行員問題 한 두사람 더 붙이고 덜 붙이는데 뭐 큰 지장이 되겠습니까?

南(金三勳): 首席代表님이 35名하시지만은, 40名은 최소한도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은 뭐 협상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숫자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올리고 내리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貴側에서도 당연히 한 40名은 돼야한다, 오히려 障壁을 허물면서 한 50名하자 그럴걸로 기대를 했던건데 20名을 내시는 바람에 失望을 했던거지, 그래서…….

北(백남준): 이제, 아무래도 우리 會談이 열리면 내 생각에는 그쪽 代表團에 20名 가지고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그때가서 윗분들이 討論해서 하면 되겠지만은, 또 그때가면 우리가 30名이라 했지만은 20名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뭐 40名으로 늘수도 있을게고, 또 다른 어떤 部門別로 또 어떻게 무슨 될 모아서 一括討議方式과 個別討議 方式으로 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게고 그런데, 오늘은 이거라도 하나 또 하자, 그래서 30名으로 하자…….

南(宋漢虎) : 30名内外로 해가지고……, 통크게 해.(場內웃음)

北(김영철) : 지금 時代가 發展했습니다. 사람들의 思考能力도 發展했습니다. 能率性이 옛날에 하나라면 오늘은 百, 千을 하는 時代입니다. 그런 條件에서 옛날 時代에 뭐 이렇게 됐다해서 결국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서른명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北(백남준) : 그래서 30名 하자요, 그럼, 정 宋先生이 讓步를 못하겠으면 그럼 다음번에 討論하고, 그것 가지고 또 길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30名으로 합시다.

南(宋漢虎) : 30名内外, 内外해가지고 4 - 5名 範圍內에서 融通性있게 하도록 합시다.

北(백남준) : 4 - 5名 範圍內에서?

南(宋漢虎) : 그래, 더 이상 안할테니까…….

北(백남준) : 그럼, 그건 다른 순서에 가서 또…….

南(宋漢虎) : 다른 순서에 가지말고, 요거라도 하나 우선 해 놓고…….

北(백남준) : 研究를 해서 다음번에 討論하자.

南(宋漢虎) : 研究하겠어요?

北(백남준) : 예.

南(宋漢虎) : 研究하신다니까 난 또 強要할 수 없고……. (場內웃음)

北(백남준) : 會談名稱 問題인데, 이 名稱問題와 關聯된 우리 立場은 1次, 2次, 3次, 오늘 또 基本發言 들에서 充分히 說明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會談名稱 정하는데서 雙方이 이렇게 合意를 이룩하자는 무슨

基準點을 設定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우리는 첫째로 이 會談名稱을 정하는데서 이 會談名稱을 本會談의 性格과 使命에 符合되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이게 先例의 基準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아까 基本發言에서 말씀하셨지만 實際上에 있어서야 北南關係問題 全般을 다루는 그런 會談이야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當面하게 北과 南사이에 誤解와 不信의 이런 根本要因으로 되는 當面한 政治 軍事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것을 自己使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總理가 지난해 11月 16日날, 그 다음에 今年 正月 16日날 강영훈 總理한테 보낸 편지에서 明白히 했고, 그다음에 貴側 總理도 여기에 대해서 肯定的인 反應을 보여서 그래 이 豫備 會談이 마련되게 된건데, 이 會談名稱은 뭐냐하면 이 會談의 말하자면 性格과 이런 使命에 맞게 政治 軍事的 問題를 討論하는 그런 會談이다. 이렇게해서 그저 우리가 提起한 그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될 만들 基準으로 봐야 되겠는가 하면, 이 會談名稱 設定에서 一般的인 이런 原則에 符合되게 이렇게 정하는게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一般的으로 會談名稱이라는 거는 무슨 問題를 討議하는 會談인가 어떤 級의 會談인가 이런 걸 잘 反映해서 정하는게 이게 常例가 아닌가, 이게 會談名稱 設定에서 一般的 原則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提起한 이 會談名稱으로 말하면 이게 政治軍事問題를 다루는 會談이다 하는데 우리가 提案한 名稱이 正確하고 또 선명하고 그 앞에다 高位級이라는 것을 붙였으니까 그 級數도 明白히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反面에 이제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 이렇게 되면 이 會談 固有의 特徵을 規定하는 主要한 要素가, 主要한 한 要素가, 말하자면 무슨 問題를 討議하는 會談이나 이런게 反映돼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會談名稱을 우리가 내놓은데로 北南高位級 政治 軍事會談으로 하는 것이 合理的이고 이상적이 아니냐 그런 意見입니다.

會談名稱이 合當해야 된다. 이거 아무래도 모든 事物現象을 命名하는데서 이거 科學的 意味가 아주 重要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상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會談名稱에서 高位級 政治 軍事會談,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지금 當面하게 解決하려는 軍事的 對決, 그 다음에 이제 政治的 對決 그 어느 하나에 名稱에서 치우치거나 科學的 意味에서 볼때 그것도 어느 하나로 해석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政治 軍事會談,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合當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고 그저 이 會談名稱을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當局者會談이다 總理會談이다 이렇게 하는거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當局者會談 이렇게 할땐 이 科學的 意味에서 보면 이게 當局 次元의 會談인가 아니면 民間次元의 會談인가 이런데는 科學的 意味에 妥當할 수 있지요. 妥當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當局者會談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會談 固有의 精神이 名稱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고 不明確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總理會談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總理會談이라 하게 되면 科學的 意味에서 보면 뭐인가, 總理, 個別的인 總理들 互相間에 이런 會談이란 뜻에서는 科學的인 意味에는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總理會談이라고 하는 科學的인 意味에서 代表團, 總理를 團長으로 하고 高位級들로 모여진 代表

團 互相間의 이런 會談이다 하는 이런 意味는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科學的인 意味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會談名稱 이렇게 하는게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갈래의 지금 北南間의 會談이 進行되고 있지 않습니까, 對話들이,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 分野에서 또 새로운 對話들이 또 이제 擴大될게 豫想된단 말입니다.

이런 條件에서 정말로 不必要한 혼돈이 없어야 된다, 名稱自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政治 軍事會談 이렇게 하면 무슨 體育會談이다, 무슨 赤十字會談이다, 무슨 또 經濟會談 등 이런 다른 말하자면 會談과 不必要한 혼돈을 없앨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나 하나 當局者會談이다, 總理會談이다 이렇게 놓으면 마치도 이게 北南關係의 全般을 다루는 이런 會談인 것 처럼 誤認될 수도 있고, 또 同時에 그 位置도 보면 어떤 다른 會談들의 무슨 위에 놓인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걸 미루어 보아서 그저 우리가 提起한 北南高位級 政治 軍事會談 이렇게 名稱을 하는 게 가장 合當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名稱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오래가지 말고, 北南高位級 政治 軍事會談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同意를 하시라요.

南(宋漢虎): 내가 농담을 하나 할게요. “하시라요” 하나까 그런데, 우리 記者들이 場面을 못보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듣게 되면은 白先生이 南側 首席代表인지, 내가 北側 首席代表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야. 오히려 내가 以北 사투리를 더 많이 쓴다고…….

北(백남준) : 어허허

南(宋漢虎) : 그러지 말라우요 정말. 이제 白先生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貴側의 名稱대로 高位級 政治 軍事會談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은 政治 軍事問題만 다루는 거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誤解받기 쉽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南北間에 解決해야 될 問題가 政治 軍事問題만 아니다 이거예요. 軍事問題만 아니고 여러가지 懸案問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總理들을 비롯해서 南北의 高位當局者들이 만나는 會談에서 어떻게 政治 軍事問題만 다룰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經濟問題, 社會問題, 文化問題 등 폭 넓은 문제들이 다함께 論議돼야 할게 아니냐 그런 意味에서 우리는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 사실은 우리가 總理會談으로 하자는 것은 貴側의 立場도 考慮해서 折衷案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白先生께서 이야기 하기를 뭐 이렇게 우리 名稱대로 한다 하는게 되면은 어떤 問題를 다루는 어떤 性格의 會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北(백남준) : 사실이지 뭐, 사실이지 뭐, 하하하

南(宋漢虎) : 그거는 議題問題에다 包含시키는 거다 이거지.

어떤 議題問題를 協議했을 때 그 어떤 內容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內容을 거기에다, 議題問題에다가 열거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節次問題에서 代表團의 構成問題라든가, 會談開催日時 問題라든가, 名稱問題, 議題問題 다 論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議題問題 論議할 때 거기에다 몇가지 討議할 事項을 包含시

키면 되는거지 굳이 名稱에는 굳이 그렇게 表現할 必要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상 總理會談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貴側도 과거 많이 使用하고 또 그렇게 하자 했다 이말이에요.

北(백남준) : 그건 그때 또 할게 있어 必要해서 했다…….

南(宋漢虎) : 아니, 그러니까 가령 예를들어 봐 가지고, 80年度 南北總理間 對話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이 板門店에서 있지 않았어요. 그 當時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貴側은 總理接觸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는 總理會談으로 하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先例가 있고 또 事實上 지난번 87年1月11日인가 그때 貴側이 똑같은, 지금과 같은 南北高位級 政治 軍事會談을 하자 하고 提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副總理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그런 會談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側이 그 當時에 總理가 貴側 그 당시 이근모總理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南北間의 緊張緩和라든가 信賴構築을 위한 總理會談을 하자, 總理會談을 하자 이렇게 提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貴側에서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3月30日字 편지에 이근모總理가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緊張緩和와 平和를 保障하는 政治會談이라면은, 그 뭐 굳이 形式에 구애받을 必要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 便紙카피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 뭐 읽을 必要는 없는 거고…….

北(백남준) : 거두절미를 하누만.

南(宋漢虎) : 아니, 아니.

北(백남준) : 나두 있어, 나두 있어.

南(宋漢虎) : 내, 그러면 읽을게요.

이근모總理께서 3月30日날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봐 봐요. 「우리는

나라와 民族을 위하여 실지로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보장할 수 있는 政治會談이라면은 구태여 形式에 구애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意味에서 나는 貴側이 提起하고 있는 總理會談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總理會談이 열리면은 北과 南은 緊張緩和에 必要한 諸般問題를 폭넓게 協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對決과 不信을 解消하고 和解와 團합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갈래 會談들도 성과적으로 推進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貴側이 總理會談과 같은 高位級 政治 軍事會談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고 우리側 또한 總理會談의 開催도 무방하다는 意思를 表示하고 있는 이상 우리 雙方은 하루빨리 이 會談을 마련해야 됩니다. 나는 이로부터 貴側에 北南總理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部長級 豫備會談을 엄숙히 가질 것을 정중히 提議합니다. 豫備會談代表는 雙方 總理들이 任命하는 部長級으로 하여 여기에 2명 정도의 隨行員을 參加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 이거 거두절미한게 아니예요.

北(백남준) : 그건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南(宋漢虎) : 아니 백선생 이건 2年前 이야긴데. 2年前하고 지금하고 南北關係 狀況이 크게 변했나 뭐.

北(백남준) : 이번 趣旨야…….

南(宋漢虎) : 이번 趣旨, 아니 이것도 다르게 아니야. 그당시 北側에서 南北高位級 政治 軍事會談, 다른 會談을 하자는데 아니예요.

무슨 經濟會談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赤十字會談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高位級 政治 軍事會談 하자면서 이렇게 다 同意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건 나 理解가 안간다, 이거야.

北(백남준) :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年이 되는데 우리가 이 會談을 마련할때야 당면한 總理會談…….

南(宋漢虎) : 그러니까 總理會談을 하자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高位級, 저 뭔가 高位當局者會談을 하자는 거예요.

北(백남준) : 그, 이제 결국 그것을 풀음으로써 다른 것을 다 풀수 있는 당면한 政治的·軍事的 對決을 解消하는 問題…….

南(宋漢虎) : 그러니까 우리가 對決을 政治 軍事的…….

北(백남준) : 使命을 이렇게 했는데. 그건 강영훈總理가…….

南(宋漢虎) : 아니, 우리 저 政治 軍事的 對決 해소문제를 論議 안하겠다는게 아니야, 하겠다 이거야, 하겠다 하고, 이걸 다른 問題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主張하는 總理會談 또는 高位當局者會談이 더 名稱이 더 適當하다 이거지. 적절하다.

北(김영철) : 宋先生, 그럼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南(宋漢虎) : 말씀하세요.

우리 또 김영철代表 말할 때, 굉장히 재미있고 또 그렇습니다.

北(김영철) :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데는, 會談名稱을 정립하는데는 두가지 原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會談名稱, 어떤 級の 會談인가. 이것이 明白해야 되고 아마 이것이 첫째 原則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둘째 原則은 뭐인가. 會談의 名稱이 會談의 性格과 使命에 맞게 정립됐는가?

이런 두가지 原則에서 會談名稱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이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南(宋漢虎) :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北(김영철) :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意味에서 우선 첫째, 그쪽에서 當局者會談, 總理會談으로 하자는데 어떤 問題點이 있는가?

어떤 級の 會談인가, 하는 것을 正確히 대답 못합니다.

南(金三勳) : 正確하게 대답하라고요?

北(김영철) : 말들어 보지요. 아, 내 三勳先生한테 처음부터 意見있는게 뭐인가; 꼭 相對側이 發言하기 前에 자꾸 말꼬리를 잡고..... (웃음)
國際舞臺에도 많이 나셨겠는데, 정중히 충고를 줍니다.

南(宋漢虎) : 두분이 악수 한번 다시 한번 악수를 하세요.

北(김영철) : 정중히 충고를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 이렇게 했는데 마치도 當局者, 當局者 사이의 個別會談처럼 들린다, 또 總理, 總理 사이의 單獨會談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總理가 參加한다, 當局者가 參加한다는 意味에서는 일정하게 級數는 表明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會談이 어떤 會談인가? 總理를 明白히 團長으로 하고, 北과 南에서 南과 北에서 政策執行과 軍事力 使用에서 責任있고 權限이 있는 高位級 實權者들이 參加하는 會談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表現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通稱해서 공통분모로 高位級이라고 우리는 發言했습니다.

學校에서 學生들이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해서 합을 구하자고 해도 어

면 길이 있습니까?

어차피 단일한 共通分母를 내는 그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高位級이라 하는 것을 會談名稱에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국자, 總理 이르기 때문에 會談 級數도 정확히 表現 못했다, 이게 그쪽 會談名稱이 가지고 있는 첫째 問題點이다, 내가 보 건대는 이래요.

두번째, 會談原則이 어떤 性格의 使命이건 이것이 會談名稱에 명백히 드러나야 된다고 내가 그 原則을 設定했습니다.

그러면 總理會談이다, 當局者會談이다. 도대체 어떤 問題를 討議하는 會談인가? 무슨 問題를 討議하는 會談인가? 안겨 옵니까? 안겨 안옵 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자는 政治軍事會談 會談名稱은 왜 이런가? 北南사 이에 풀어야 할 統一途上에서 1次的으로 거둬들여야 할, 폭파해 버려야 할 政治的 對決狀態라는 障礙物, 軍事的 對決狀態라는 二大障礙物을 除去 하자는 會談입니다.

우리 北南이 분열돼서 40餘年동안 격폐돼 살아 왔습니다. 이걸 아마 宋先生이 認定하는 사실입니다.

三勳先生이 實責任者요 뭐요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統一해야 할 이 마당에서 풀어야 할 問題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그 많은 問題를 다해서 會談名稱을 만들겠는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1次的으로 풀어야 할게 뭐인가?

政治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 軍事的 對決상태를 解消하는 問題입 니다. 이 二大障礙物을 제거해야, 첫째는 誤解와 不信을 가실수 있습니다.

둘째는 뭘 가질 수 있는가?

信意있는 對話를 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뭇이 풀릴 수 있는가? 이 對決狀態가 해소돼야 交流와 協力を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요.

지나간 3次會談때 論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林秀卿學生을 우리는 愛國이다 하고 讚揚했습니다. 그쪽에선 犯罪視했지요. 뭐인가? 誤解와 不信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演習이 있다, 왜 이런가? 軍事的 對決 때문입니다. 그런데 交流協力問題를 잘 하자 해도 이 두가지 障礙物을 제거하지 못하면 제대로 못합니다. 물자를 싣고 바다에는 배가 왔다 갔다 해야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되는데 박종권先生님, 武力을 雙方이 配置해 놓고 속에 칼을 품고 交流와 協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會談이 무슨 會談인가? 統一途上에 가로놓여 있는 二大障礙物, 政治的 對決狀態,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자는 會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會談名稱을 명백히 政治 軍事會談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였던 高位級會談, 또 政治 軍事會談 해서 高位級 政治 軍事會談이다. 어떻습니까? 會談 原則 정립의 두개 原則을 어느 것이 가장 정확히 反映했는가?

이래서 우리가 主張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건데는 지난 時期 北南關係에서 대화들이 많이 進行됐는데 會談名稱은 이렇게 정립했습니다.

會談의 使命과 目的에 맞게, 내 한번 實例를 들겠습니다. 經濟問題를

다루는 會談 뭐라고 했어요? 經濟會談이라고 했습니다. 또 人道主義的인 問題를 다루는 會談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人道的인 상징인 赤十字란 이름을 붙여서 赤十字會談, 그것도 故鄉訪問團 藝術團 會談이면 그걸 붙여서 그런 會談이다. 또 體育問題를 다루는 會談은 體育會談이다. 體育問題도 具體的으로 보면 어떨때는 卓球팀을 構成하는 會談, 무슨 아시아 경기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會談, 이렇게 會談名稱이 무슨 問題를 解決하는 會談인가 명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先例를 봐도 우리 名稱이 타당하다. 總理會談, 當局者會談 어딘지 모르게 좀 우습단 말입니다. 프로수를 놓고보면 그쪽에는 會談名稱이 프로수가 原則에 놓고 보면 한 30%나 合格됐다고 말할까?

아, 같은 값이면 100% 짜리를 本會談에 내놓으면 좋지요. (잠시소란)

北(김영철):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내 實務接觸問題 討議들어 가는데 한가지 좀 附言하겠습니다.

南(宋漢虎): 우리 金代表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北(김영철): 實務節次問題 討議들어간 이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互相讓步, 互相理解, 互相信賴입니다. 그래서 이번 會談이 마련된 經緯를 놓고 봐도 우리 總理가 지난해 11月 16日날 便紙를 보냈고 1月 16日날 인가 便紙를 보내서 마련됐는데 결국은 그 어느때든지 거둬들여야 할 統一이라는 큰 收穫을 위해서 政治軍事會談이라는 씨 種子를 우리가 먼저 뿌린 셈입니다.

씨 種子가 좋으면 제때에 싹이 트고 자랄 수 있게 溫度도 제때에 주고, 濕度도 제때에 주고 그리고 빛도 제때에 주고 같이 協力을 해야지 그 씨 種子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걸 파헤치고 사실 會

談名稱을 修正하자는 건 그 妥協하는 것과 같아요. 妥協하고 다른 씨 種子를 심으려면은 되겠는가,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시오. 우리 會談場所를 우리가 發起했지만 우리 團長동지 오늘 양보를 크게 했습니다. 서울로 하자. 양보를 크게 했고, 또 아까 隨員問題도 그쪽에서는 40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20명을 폭 낮췄는데 그쪽에 接近해서 30명을 사실 양보해서 折衷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가지 양보를 했으면 會談名稱쯤은 양보하고 나와야 그래야 괜찮지. 아니 宋先生 統一하자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金保鉉) :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貴側 代表團의 표정이 아주 밝고 인상도 후덕하게 보입니다. 이제 名稱問題를 論議하는데…….

北(백남준) : 항상 밝았는데 또 무슨 오늘만…….

南(金保鉉) : 오늘 따라 유난히 밝습니다.

北(백남준) : 아하하, 이렇게 視角이 다르단 말이야…….

南(金保鉉) : 그래서 貴側이 主張하는 名稱의 기준에 입각해서 제가 우리측 立場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貴側은 會談名稱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原則으로서 어떠한 級이 만나는가, 또 어떠한 問題를 놓고 論議하는가 하는 것을 그 象徵하는 名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전적으로 우리도 同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級이 만나느냐, 어떤 水準의 會談이나 하는 問題를 우선 놓고 보면은 이 會談은 雙方總理들의 書信에서 오고간 바와 같이 정말로 頂上에 버금가는 雙方總理들이 雙方의 國政全般을 다루는 總理들이 만나는 會談입니다.

이러한 總理들이 만나는 會談이라는 기준에서 놓고 볼때 이걸 얼마든지 總理級 會談, 또는 南北高位級當局者會談이라고 붙이는데 하등의 어떤 불편한 點도 없습니다.

남들이 또 알아보기도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의 예나 오늘날 國際慣例를 보더라도 최소한도 그 나라의 外相級 이상이 만나는 會談이면 外相會談, 또 首腦가 만날때는 首腦會談, 頂上會談 이런 表現으로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會談이 어떻게 成立되어서 豫備會談이 열리게 되었느냐 하는 經緯面에서 볼 때에도 貴側에서 提案을 했고, 우리 總理가 받아서 서로 書信이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會談이 마련이 되었고, 우리 代表團도 전부 總理 信任狀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總理會談으로 하든지 또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이라고 하든지 貴側에 選擇的으로 우리가 두가지를 놓고 하나 選擇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어떤 問題를 가지고 論議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重要的 意味를 가집니다.

貴側은 분명히 이 會談을 提案하면서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會談을 提案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政治軍事問題와 함께 이밖에 情勢緩和에 기여하는 問題라면 모든 問題를 討議할 수 있다고 그랬고, 지난해 11월, 어떻습니까?

包括的 平和保障方案에서 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提案하면서 貴側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게 政治軍事問題뿐만 아니라 소위 南北合作과 交流問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內容을 잠시 引用을 해보면은 總理가 首席代表로 되는 會談이 열린다면은 여기서 다룰 議題가 무어나.

政治軍事問題 좋습시다. 물론 貴側은 政治問題를 여기에 包含시켰습시다
만은 南北間의 人士來往을 한다, 資源을 共同開發한다, 商品交流을 한다,
教育問題를 다룬다, 科學技術問題를 다룬다, 文化·藝術을 다룬다, 保健問
題를 다룬다, 體育問題를 다룬다, 對外的 共同協力問題까지 다룰 수 있
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貴側主張대로 高位級政治軍事會談이라고 했을때 그건 남들이 알
기에 말이지요. 아, 저 會談에서는 政治問題, 軍事問題만 다루는구나, 이
렇게 認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高位級政治軍事會談이라는 것은
議題로 볼 때에도 편협된 主張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貴側에서도 總
理가 41個 部處를 管掌하고 있습니다.

貴側의 모든 問題를 管掌하고 있어요. 그리고 貴側 主張에서도 資源
共同開發, 商品交流 이런 經濟問題도 提起를 했고, 體育問題도 提起를 했
고 文化·藝術·保健 다 提起를 했습니다.

이렇게 實質內容에서는 政治, 軍事, 經濟, 社會, 文化, 藝術 전부 하자고
하면서 유독 名稱만은 政治軍事會談이라고 하자, 이렇게 主張을 할 경
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金代表께서 뭐 經濟會談을 하면은, 經濟問題를 다루면 經濟會談, 體
育問題를 다루면 體育會談,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 하는데 이 分野別 會
談과 이 高位當局間會談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나? 우리 南北韓 當局이 뭐니까? 이러한 分野別 會談이 잘되
도록 멧힌데는 풀어주고, 이걸 잘 引導하고, 促進하고, 잘 되도록 勸獎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그러나? 南北韓 總理任務가 南北韓 懸案 問題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貴側이 主張하는 政治軍事會談이라는 名稱은 우리側으로 볼 때에는 좀 편협한 側面이 있다. 다들 內容을 전반적으로 包括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側이 두가지를 提示했습니다.

하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 다른 하나는 南北總理會談, 이 두가지 중에서 貴側이 하나 選擇的으로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意見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北(최우진) : 제 좀 말씀드립니다.

이 會談名稱과 관련되어서 이제 論議들을 하는걸 보면은 金代表가 우리 政治軍事會談이라고 하면은 이여의 問題를 總理會談에서 덜 관심하고, 배제하고 다만 이제 政治軍事問題만 論議하기 때문에 편협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名稱 이게 적합치 않다고 하는데 이 南北關係 狀況에서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狀況이 많은데 가장 主되는 要因, 主導的인 要因이 政治關係하고 軍事關係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말입니다. 그건, 그건 우리 누구나 보든지 南北關係 懸案問題에서 가장 主導的이고, 要衝이라고 할 수 있는게 政治軍事問題라고 보거든요.

南(金保鉉) : 어느건들 重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北(최우진) : 아니, 아니…… 現狀況에서 政治問題·軍事問題만 풀리면 以外の 問題가 自動的으로 혹은 쉽게 이렇게 풀린다고 저는 看做하고 있던 말예요. 건, 뭐 公認되는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會談名稱을 政治軍事會談이라고 하면 絶對로 편협한 主張아니고 會談名稱에서 그계 部分을 包含하는 그러한 名稱이라고 우리 보지 않습니다. 이 政治軍事會談이라고 이렇게 名稱가지면은 여기서 懸案問題에서 가장 主導的인

문제를 풀기 때문에 以外の 問題도 다 쉽게 풀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代表性이 강한 그런 會談名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난 다른 하나는 貴側에서 지금 當局者會談을 이렇게 또 한 案으로 提起를 했는데 이 當局者會談에 대해서 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當局이라는 言語表現을 우리가 이제 語感上 理解解得上 우리가 좀 不便을 느낀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當局에 대해서 解釋하는거 보면 그쪽의 이제 무슨 辭典類라든가 出版物들도 當局이라는게 뭐냐 그 어떤 일을 받아 處理하는 機關이나 官廳이다. 거기 勤務者를 當局者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解釋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러한 解釋에 基礎해서 當局에 대한 言語概念을 보면은 社會生活分野에 各 分野에 當局概念이 설 게고 또 그 位相을 봐도 郡級이나, 道級이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當局에 대한 얘기……表題로 삼아서 當局會談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當局에 대한 얘기를 理解하는 데서 우리 北半部 人民들……, 저부터도 이 當局表象이 그렇게 明白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問題를 놓고 보면, 이 言語概念에서도 우리가 一定하게 잘 안겨오지 않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이 統一途上에 會談名稱을 定하는데서 이러한 不便한 점을 克服하고 정말 그 統一意志를 이렇게 明白히 하는 政治軍事會談이다. 이게 會談名稱으로는 제일 좋은 方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名稱을 우리 案으로 選擇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貴側에서 提起한 總理會談, 當局者會談은 어딘가 모르게 이게 名稱이 適合치 않고 우리 이 軍事當局者會談 名稱

으로 해야 이 南北關係 會談問題에 대해 우리 잘 풀고 會談名稱이 內容을 이렇게 바로 表示한 그런 名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南(朴鍾權) : 白先生,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北(백남준) : 예, 말씀하세요.

南(朴鍾權) : 아까 우리 北側代表 白先生께서 視角의 差異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事實 거 보는 觀點에 따라서 視角의 差異, 認識의 差異가 전혀 달라서 見解差異가 다른 方向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視角의 差異를 接近하는 그러한 그 討議가 굉장히 必要합니다.

아까 그 김영철代表, 政治軍事的인 問題 이것이 南北間에 가장 緊急, 急迫하고도 重要한…….

北(김영철) : 중차대하게 풀어야 할 中核的인 問題다…….

南(朴鍾權) : 問題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맞는 事實입니다. 우리가 對決되어 있는 이 狀況에서 政治軍事的인 問題가 가장 比重이 크고 重要한 課題라는 것도 우리는 認定하고 있습니다.

北(김영철) : 認定하시는구만.

南(朴鍾權) : 그런데 問題는 그 結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우리들의 見解, 우리들의 認識은 結果가 問題가 아니고 그 原因을 우리가 分析을 해서 原因부터 接近해서 그 障礙要因이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問題를 풀어 나가야지 지금 당장 對決이 尖銳化되어 있는 軍事的인 問題와 政治軍事問題를 이렇게 除去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 問題가 解決될 수 있는가? 이러한 算術的인 그 判斷, 그러한 그 單純한 論理를 가

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40年동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悲劇的인 現狀으로 發展됐는가? 이것은 갈등과 對立과 不信과 이러한 不信關係가 씩트고 이것이 尖銳化 돼가지고 오늘에 풀 수 없는 狀況까지로 發展했다는 이 事實을 우리가 勘案을 해 볼 때에 우리가 政治的인 問題, 軍事的인 問題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는 모두가 多角的으로 이 不信을 解消하는 이 接近方法, 方式, 이러한 信賴構築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政治軍事的인 問題가 比重도 크고 結果的인 問題이긴 하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信賴構築부터 이것을 풀어나가야 이 問題가 解決되어지지 바로 뛰어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認識하고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行政首班인 總理가 團長으로 하는 그러한 多角的인 交流를 해서 問題를 풀면서 같이 竝行해서 이 問題를 다뤄야 解決될 수 있다고 우리는 認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北(최우진) : 제가 좀, 제가 좀…….

北(백남준) : 예, 말씀하세요.

北(최우진) : 오늘 이렇게 그 實務節次問題 討議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진지하게 意見을 交換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本會談 名稱問題인데, 이 名稱을 어떻게 設定하는가 하는 問題는 앞으로 本會談을 어떻게 進展시켜 나가는가 하는 問題와 關聯되는 매우 主要한 問題이고, 또 原則的인 問題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를 우리 진지하게 잘 協議해서 合意를 보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問題

들에 대해서 우리 團長同志도 말씀하고 다른 代表同志도 말씀했는데 제가 크게 重複되지 않는 方向에서 좀 몇가지 이야기를 하자 것입니다.

우선 나는 이 本會談 名稱을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할 데 대한 理由로선, 雙方 總理들 사이에 基本的이라 하겠는지 하여간 좀 諒解가 된 問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한쪽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이제 貴側 總理로부터 우리 總理한테 보내온 지난해 12月 28日 그 便紙에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不信과 誤解가 남아있는 限 아무리 對話를 하여도 對決과 平和統一을 위한 길에서 實質的인 前進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理致이다”라고 指摘하고 그러면서 不信을 解消하고 특히 緊張을 緩和하는 問題가 매우 重要하다는 問題라는 것을 強調했습니다.

그러면 이 緊張을 緩和하고 不信을 解消하는데서 根本問題가 뭐인가? 이것은 여러 우리 代表同志가 다 말씀했지만 이 政治的對決, 軍事的 對峙 狀態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戰爭의 威脅도 가셔지지 않고 있고 事實上 지난時期 여러갈래 對話가 進行됐지만은 여기서 成果를 거두지 못한것도 이와같은 不信과 誤解와 關聯된 겁니다.

이 不信과 誤解의 근저에는 이제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總理들이 마주 앉는 만큼 總理들이 무슨問題를 먼저 풀어야 되는가? 여기에선 根本問題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根本問題는 우리는 이제 朴先生이 이야기했는데 多角的인 協力과 交流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보다 重要한 問題는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입니다.

이 根本問題를 푼다는 것은 말하자면 中心고리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니다. 이 中心고리 하나만 풀게되면 다른 以外の 고리들이 다 풀려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지 北南關係에서 걸리고 있는 政治軍事對結狀態 解消만 하면은 그렇다면 多角的인 協力과 交流는 뭐 저절로 풀릴 수 있고, 뭐 來往問題도 그렇고 모든 問題가 거기에 歸着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같은 問題를 봐서 그래서 우리 貴側總理도 바로 이와같은 緊張을 緩和하는 問題, 不信을 解消하는 問題 이 問題와 關聯해서 이번 會談을 우리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意向을 表示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意味에서도 저희들 主張이 妥當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번째는 무슨問題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가 마주앉게 된 이와같은 經緯를 놓고 봐도 事實上 우리側이 提起할 때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하자고 貴側에 提起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豫備會談도 마련되게 된 것이고 이와같이 이번 會談이 마련되게 된 過程을 놓고 봐도 이거 우리가 名稱을 이와같이 하는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번째로 再強調할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會談에는 우리는 軍實權者 2名, 貴側에서는 軍參謀總長을 이번 代表團에 網羅시킬 것을 提起했습니다. 이번 會談에는 이래나 저래나 表現은 다르지만 軍代表가 參加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北南對話를 여러번 해 보았지만 이와같은 軍代表가 특히 軍實權者가 貴側에서는 軍實權者인 軍參謀總長級이 參加하도록 이와같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會談名稱에, 會談名稱이 軍事를 強調해서, 政治軍事 이와

같이 軍代表가 처음으로 會談에 參加하게 됐는데 그 意義를 賦與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이 軍事問題,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協議합니다.

그런데 이 問題를 갖다 보면, 現 國際的 趨勢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이것은 대단히 무척 重要的 名稱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우리 國際的인 이제 趨勢를 놓고 봐도 그렇고, 또 우리 北南關係 지금까지 對話名稱을 놓고 봐도 이 對話名稱을 明白히 規定한 이와같은 例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쪽에 政府首腦會談, 外相會談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體育會談하는 거 第11次 亞細亞競技에 唯一팀을 構成해서 派遣할 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北南體育會談, 물론 간단히 할 때는 北南體育會談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亞細亞競技에 唯一팀을 構成해서 보낸다, 이 問題를 딱 設定했기 때문에 北과 南 사이에는 體育分野에서 協議해야 될 問題가 많단 말입니다. 體育分野에서 北南關係가 풀어야 할 問題가 많지만은 亞細亞競技, 그것도 11次 亞細亞競技에 唯一팀을 構成해서 보낼데 대한 問題다 이렇게 會談名稱을 딱 規定해 놓으니까 모든 이 會談이 다른 問題는 論議 안되고 여기 集中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같이 하는게 아주 좋겠다고, 또 우리가 朝鮮問題와 關聯해서 우리 54年度에 그 宋先生 잘 아시겠지만, 제네바에서 朝鮮問題와 關聯해 會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朝鮮問題 平和的 調整을 위한 제네바會議, 그때 당시는 停戰合意 됐으니까 朝鮮問題 平和的 調整하는 問題가 매우 절실한 問題로

提起했으니까 朝鮮問題 平和的 調整, 이와같이 問題를 딱 달아놓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問題討議를, 물론 議程問題는 별도로 있지만은 그러니까 會談名稱은 이렇게 하는게 좋고 또 現在 우리 구라파에서 가장 重要的 會議의 하나로서 進行되고 있는 이 會議, 구라파 安全協調에 관한 會議, 이것도 이제 보게되면 구라파의 安全과 協調, 이 問題를 갖다가 會議名稱에 딱 附着시켜 놓고…….

이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될 歸着시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北南關係에서 놓고 보면, 여러가지 풀어야 될 問題들이 많은 條件下에서, 根本問題, 中心的인 問題 이것을 풀 수 있도록 이 會談名稱을 잘해 놓으면 이 本會談의 成果를 擔保하는데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와같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고 내 간단히 當局者會談과 總理會談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겠는데 지금까지 보게되면 여러가지 會談들이 있지만은 이 當局者會談, 이 當局이라고 붙여 놓은건 아마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總理들이 모여 앉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물론 總理會談은 있습니다. 그러나 當局者會談, 이렇게 붙여놓은건 없는데 그래서 그저 물론 없는걸 새롭게 만들수는 있습니다. 만들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태여 이렇게 될 當局이라는걸 요렇게 딱 붙이겠는가? 이런 問題가 있습니다. 이거, 當局이란걸 딱 붙여야 되겠는가?

이제 當局이라는 概念이 뭐 辭典的인 解釋을 봐도 모호한게 있다 이렇게 된것도 있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總理會談에 대해서 이미 貴側에서는 이번 本會談은 總理를 團長으로 해서 각각 合意된거나 다름없는건데 7名씩 代表團 構成하자, 벌써 代表團構成은 7名으로 하자는게 이

거 合意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合意文 採擇은 안했지만은 各自 7名, 지금 벌써 代表團을 構成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總理만, 이렇게 總理會談 이와같은 性格을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代表團을 7名으로 構成하는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써 雙方이 合意된거나 다름이 없는 이와같은 代表團의 數字를 다 提起했는데 이런걸 놓고 봐도 이걸 總理會談이 아니라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무슨 會談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고, 이와같은 問題에서 이제 貴側에서도 新聞이 이 總理會談問題에 대해서 글을 쓴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걸 썼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總理會談인 경우에는 다른 參席者는 總理補佐役に 불과하지만, 代表團으로 參加할 경우에는 總理가 首席代表로, 여타 參席者들은 代表가 臨時로 首席代表를 代行할 수도 있다는 것이 當局者의 說明이다.

이렇게 貴 當局者의 說明을 들어서 貴側에서 이제 그 新聞이 이렇게 評價한게 있는데, 이걸놓고 봐도 우리가 總理會談, 이렇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가지 問題討議性格이라든가, 使命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與件들을 說明했는데, 이런걸 놓고 봐서 거 저 宋先生은 어떻습니까? 거 저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이렇게 오늘 會談名稱을 落着지으면은 우리 對話앞에 이거 아주 큰 前進을 가져오겠는데 한번 거 저 우리 지금 까지 3차례 했지만은 이거 전번에 本來 봉창을 하자는거 봉창을 못했는데 이번 會談에 이거 妥結해서 우리 봉창을 하고 우리 겨레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게 어떻겠는가 저 이런 생각해요.

南(廉弘喆) :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首席代表님이 말씀하셨고 두분 代表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原則은 같습니다만 重複된 것을 피해서 몇가지 提起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김영철代表께서나 최代表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政治軍事會談이 中核的이라는 表現을 썼는데 重要하다는데는 同意합니다. 가장 重要的 課題中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대표께서는 重要하면서도 그러니까 中核的이면서도 어떤 先次的인 課題라 했는데 先次的인 課題라는데는 同意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政治軍事會談이 가장 重要的 問題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南北關係에서 여러가지 緊張과 對決狀態를 緩和하는데 있어서 우선 順位는 政治軍事問題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 會談에서 뿐만 아니라 南北間에 그동안에 여러차례 強調된 겁니다. 우리는 交流協力을 強調했고 貴側은 政治軍事를 그동안에 強調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政治軍事會談을 하면서 예컨대 「우리 총을 놓자」 「武裝解除 하자」 또 「軍縮을 하자」라고 서로 主張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武裝解除 하자」, 「총을 놓자」는 그 말자체를 서로 의심합니다. 貴側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떤 意圖로 저러는가 또 우리가 武裝解除 하자, 모든 與件이 形成되지 않은 狀態에서 政治軍事的인 問題를 들고 나와서 이거 뭐 오늘 모든 것을 다버리고 다 武裝解除하는 것에 대해서 疑心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쌓여진 不信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交流와 協力を

통해서 不信을 解消하고 서로 交流를 하다보면 相對方의 意圖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發見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過程에서 同時에 政治軍事問題를 풀자. 그래서 양쪽이 사실은 그 쪽은 政治軍事問題를 우선시하고 우리는 交流協力問題를 우선시하는데 우리側에서 좋다, 양쪽이 見解가 다르고 視角이 다르니까 두가지를 다 하자, 그런것이 基本立場이지, 政治軍事問題만 다루자는 것이 저희 立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具體的인 名稱과 關聯해서 지금 貴側에서는 자꾸 名稱에 있어서는 級과 內容을 規定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一方的인 主張입니다. 名稱에서는 級을 規定할 수도 있고 內容만 規定할 수도 있고 두개를 다 規定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名稱이 있고 議題가 있고 代表가 있기 때문에 級과 內容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解決되니까 名稱은 簡略하게 總理會談으로 할 수도 있고 總理를 團長으로 한 政治軍事會談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制約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뜻인데, 貴側이 이야기하는대로 級과 內容을 모든 것을 다 規定해야 한다면 赤十字會談도 副委員長을 團長으로 한 自由往來에 관한 會談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赤十字會談, 다만 議題가 自由往來든지, 故鄉訪問團 交換이라든지 다 理解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會談에 있어서 級과 內容을 規定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當局者會談과 總理會談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具體的인 表現은 總理會談이고 조금 추상적인 包括的 表現은 當局者會談인데 저희가 當局者會談을 먼저 提案한 것은 南北間은 國家間에 關係라

는 것을 強調하지 않고 民族間의 關係라는 것을 強調하면서 高位當局者 會談이라는 보다 包括的인 用語를 쓴건데 貴側에서 자꾸 具體的인 表現을 要求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總理會談도 좋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級과 內容을 會談名稱에서 規定해야 된다는 그것도 原則的으로 조금 同意할 수 없고,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과 또 貴側에서 重要하다고 하면서 同時에 先次的 課題라고 한 政治軍事問題는 重要하다는데는 同意하지만 이것은 南北間에 가장 마지막에 解決되어야 할 問題이지 처음에 이걸 먼저 解決하고 다른 것은 副次的이라는 것은 사실은 現實性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것을 分明히 指摘하고 싶습니다.

北(백남준)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宋先生, 내가 먼저 이야기 할게요.

南(宋漢虎) : 이야기 하세요.

北(백남준) : 지금 廉先生도 말씀하고 金先生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朴先生도 말씀하고 그러는데 一貫하게 보면 무슨 問題가 있는고 하면 交流協力問題를 빼놓고 政治的對決·軍事對決을 解決할 수 있는가 그런 問題인데, 그것은 우리側의 包括的인 平和方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提案하면서 政治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그 內容으로서 그안에 交流協力問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貴側에서 말씀을 하는 交流協力問題 그건 다 受容하고 있다, 그거 다 受容합니다.

우리가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에서 다룬다, 다루는 데는 각기 專門分野가 있고 實務分野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經濟部門에서는 經濟會談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體育部門은 體育部門, 아까 金先生님도 말씀하셨는

데 經濟, 文化, 體育, 기타 學術的인 問題를 包含해서 그걸 우리가 마련 하려는 會談에서는 그 領域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代身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專門的인 部門을, 實務部門을 代身할 수 없지요. 아 가 先生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當局으로서는 그 각 分野의 會談들 에 대해서 支援을 하고 協力을 하고 또 制度的으로 必要한 裝置들을 마 련을 하고 그런것을 討論해야지, 우리가 마련하려는 이 會談에서 그 問 題들 전면적으로 다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기 分野別로 會談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積極 的으로 支持하고 協調해 줘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必要한 것들은 우 리가 여기에서 協力交流問題 討論해야지 그들만 또 討論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要求하고 있는 交流協 力問題 다 受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政治的對決을 解決하는 그 一環으로서 또 이 會談의 性格에 맞게 必要한 領域에서 討論한 것이지, 專門經濟會談, 專門體育會談, 專門文化藝術部門會談처럼 이렇게 앉아서 다 討論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否認하지 안겠습니까? 그걸 受容한다, 受容하고 있다. 政治的對決 을 解消하는 一環으로서 우리가 다 討論하자는 것이다. 하나도 排除하는 것 없습니다.

그다음에 總理會談으로 하자고 하는데 宋先生도 아가 말씀하셨고 그런 데 내가 去頭截尾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종전에 總理會談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水資源會談 먼저하자 그리고 既存對話들도 다 다시 여 는 條件에서 總理會談을 하자, 이렇게 말 그대로 對話 拒否的인 이런 立

場에서 나오니까 그때 狀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하든지 마주 앉아서 討論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總理會談이라도 하자, 그래서 提起된 것이지, 그거야 뭐 宋先生이 내보다도 더 잘 알지 실제상에 있어서는…….

南(宋漢虎) : 그러니까 總理會談 하자고 그랬지요 ?

北(백남준) : 그럼 .

南(宋漢虎) : 그건 認定하시지요 ?

北(백남준) : 그때 狀況에서 뭐인가 하면 마주 앉아서 討論하자는데 水資源會談 먼저해야 된다. 既存對話를 다 하고 그 다음에 總理會談하자 이렇게 되니까…….

南(宋漢虎) : 어떤 틈에 좌우시간에 總理會談을 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지 .

北(백남준) : 그때 狀況에서는 우리가 실로 雅量이었습니다. 總理會談을 하자 雅量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분들이 이야기 했지만은 總理會談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쪽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는건데 總理와 總理사이의 만남이지, 總理를 團長으로 하면서 構成된 代表團의 만남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또 廉先生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會談名稱에서 內容과 級을 밝힐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옳습니다.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宋先生, 會談名稱이라는게 會談의 얼굴이라는 것 否定 안하시겠죠.

얼굴을 마련하자면 똑똑히 表現하자면 적어도 귀도 있어야 되겠고 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얼굴인데 그런데 덮어놓고 타원형으로 계란처럼 딱하니 얼굴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 얼굴로 만들어 내는게 누구냐…….

南(宋漢虎) : 그게 바로 總理會談이예요. (一同웃음)

北(백남준) : 들어 보세요. 우리가 提案한 會談名稱 보시요. 北南……

南(宋漢虎) : 政治 軍事는 귀하고 입밖에 없어요.

北(백남준) : 그 네가지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네가지 다 갖춰야 되요.

北과 南사이에 하는 會談이다, 어떤級에서 하느냐, 高位級에서 하는 會談이다, 무슨 問題를 討論하는 會談이나, 政治軍事問題를 다루는 會談이다.

會談이나 接觸이나 相逢이나 명실공히 會談이다. 이 네가지를 다 갖춘 얼굴이 좋지, 아 거기다가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목까지 척 달아놓은 名稱이 더 좋지, 아니 절름발이 또는 외눈통이든지 무슨 뭐가 하면 재보를 그린 그런 얼굴이 좋겠습니까?

南(廉弘喆) : 이름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간단하고 明瞭할수록…….

南(宋漢虎) : 얼굴이 分明해야 돼요. 政治軍事가지고는 귀하고 입밖에 없어요. 코하고 눈하고 눈썹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總理會談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내가 한마디 이야기 할게요, 내가 이야기 할게.

北(백남준) : 이렇게 합시다. 이런問題 가지고 자꾸 時間 보내지 말고, 우리 提案에 대해서 좀더 研究를 하시고, 다음번에로 미루고 다른問題 討議로 넘어갑시다.

南(宋漢虎) : 다음번에, 名稱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내가 간단히 이야기 할게요. 아까 金代表도 이야기를 하고 性格이라든가 뭐 맞아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또 原則에도 맞고 이렇게 名稱을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經緯를 살펴보면은 작년 11月 16日날 貴側에서 總理

가 우리 總理한테 便紙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便紙를 보내가지고 副總理를 首席代表로 하고 그리고 參謀總長級을 副團長으로 하는 그런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룰 議題는 뭐냐, 아까 우리 金保鉉代表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緩和하는 方案과 함께 그밖에 情勢緩和에 寄與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問題라도 폭넓게 協議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伸縮性있는 立場을 貴側이 提示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貴側도 議題에 政治軍事的問題만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情勢緩和에 寄與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問題라도 論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때문에 이 名稱이 貴側 名稱대로 政治軍事會談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貴側이 提案했던 議題를 다물려면 우리側 名稱대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더 合理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貴側은 貴側이 提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同意를 해 가지고서 하니까 政治軍事會談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건 完全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提案을 했을 때 우리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副總理가 團長으로 하는 그런 會談이 아니고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總理會談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議題를 뭐라고 提議했느냐 하면 相互 誹謗中傷 中止하는 問題라든가 그리고 相互尊重과 不干涉問題,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 軍事的인 信賴構築問題, 南北頂上會談開催問題 이런 것을 論議하는 그런 會談으로 하자 그렇게 提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總理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次官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각

기 5명의 代表로서 豫備會談을 열어 가지고 總理會談을 위한 實務接觸 問題를 論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貴側이 同意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이 會談이 열린게 아니예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 단 말이에요, 경위를 따지면, 그러니까 귀측도 귀측이 말하는 議題뿐만 아니라 우리가 提示했던 6개항의 의제를 討議한다는 그런 前提 밑에서 이 와 같은게 다 論議가 된게 아니냐 이거예요? 會談이 열리게 된게 아니냐.

그런거를 볼때는 貴側 名稱대로 무슨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는 그런 內容이, 주장이 너무 一方的이고 獨善的이다. 오히려 우리側이 하는 대로 高位當局者會談, 혹은 總理會談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貴側에서 이 問題를, 이것은 다시 한번 研究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다른 問題를 論議하자 그러니까 뭐 다른 問題로 들어갑시다.

議題問題 어떻습니까? 議題問題로 들어가지요.

北(최성익): 송선생, 내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北(백남준): 가만, 저 뭔가하면 다음에 또 討論하자고 했으니까 그때...

北(최성익): 내 한가지만 딱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 송선생 말씀하는데 87년도 우리가 1월 10일부 便紙로서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提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쪽에서는 水資源會談 하기전에 못하겠다. 이러다가 3월 어느날 편지 왔는가 하면 17일 편지에서 水資源會談을 하고 赤十字·經濟會談을 하고 그다음에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總理會談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總理會談을 그쪽에서 제기한 것을 우리가 수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緩和를 解決하기 위해서 그 問題를 받아들였습니다. 緩和를 解決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벌써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하자 이렇게 전진적으로 合意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되들려 세워서 總理들끼리 만나는 會談을 하는가.

아, 더 좋은 高位級 政治·軍事의 實權者들이 參加하는 會談인데.

南(宋漢虎) :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北(최성익) : 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南(宋漢虎) : 하여튼 總理會談을 하자고 그랬지. 전후사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우리 白團長선생도 뭐 이야기를, 아량을 보여서 그때 總理會談을 하자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뭐 요번에도 아량을 보이시면 되지 뭐, 그러면 되잖아, 아량을 보이시면 되요 그러니까....

南(金三勳) : 나만 發言 안했는데, 뭐 다른데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넘어가 십시다.

北(백남준) : 그래서 우리 저 다음번에 다시 研究를 해서 討論하자. 그렇게 하고 議題問題 있겠습니까?

議題問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쪽에서 包括議題로 하는데 대해서 아주 전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議題問題와 關聯해서 이제보면 결국 이제 名稱問題하고 또 議程問題하고 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또 하던 얘기 다시 또 되풀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그쪽에서 南北間, 北과 南의 多角的인 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問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인가 하면 우리 會談의 性格과 使命이 이게 잘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원

가 하면 北南關係 전체를 우리가 이 本會談이 마련돼 가지고 討論할 수도 없구요. 또 政治 軍事問題도 그 많은거 그 많은걸 다 다룰수는 없단 말이에요. 當面한, 當面한 이런 尖銳化될대로 尖銳化된 對決을 解消하고 정말 이 오해와 불신을 낳는 根本要因으로 되는 이런 當面한 對決問題, 當面한 政治的對決, 軍事的對決을 解消해야 된단 말입니다. 解消할데 대한 問題를 討論하기 위해서 호상 이것이 양해가 돼서 지금 이 會談이 마련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앞에다가 多角的인 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問題, 이게 다각적인 協力·交流問題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는데 이거 다 受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보면 뭔가하면 이게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함으로써, 이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 이거 다 풀린단 말입니다.

基本은 어느 고리를 푸느냐,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問題를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풀면 交流協力問題도 자연히 이걸 풀리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쳐놓고 하지는건 아니고 이 우리가 마련하는 本會談의 영역에서 그런 責任에 속하는 問題에서 우리가 이를 다루자는 거다. 다루자는 건데 그러니까 基本 趣旨로 볼때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자는 건데 그 앞에다가 굳이 交流·協力問題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이렇게 하지는건 이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선 對決을 解消한다고 하는 이 問題로 놓으면 기타 다른 問題들 다 풀리는데 호상 칼은 칼대로 품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交流協力 뭐 하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問題가 안풀린단 말이에요.

趣旨는 뭐인가. 당면한 우리 政治 軍事的問題를 해결하자 그러면 뒤의

문제도 다 풀린다. 交流·協力이 안되서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가 解消안 된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결국 뭐인가 하면 이런 論調로 나오면 結果的으로는 이게 뭐인가 하면 호상간에 다 비수는 비수대로 차고 앉아서 무슨 交流도 하자, 往來도 하자 뭐 이런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受容하고 있는 이런 條件에서 이 交流協力問題 이거 다룰바에야 말하자면 무슨 經濟問題, 體育問題, 무슨 文化交流問題, 무슨 人士來往問題, 通信問題, 뭐 이것만 다룰바에야 기타 우리가 지금 本會談을 마련하는 會議을 會談을 구태여 마련할 必要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經濟會談 만들고 體育會談 만들고 文化交流會談 만들고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만두면 되는거지 뭐.

거기다 다 맡겨두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會談의 使命과 目的에 맞게 의정을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이렇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交流協力問題를 論하자고 해도 그걸 우리가 論해서 풀자고 해도 이 政治的·軍事的 對決을 해소하지 않고는 풀리지 못합니다.

어느걸 먼저 풀어야 되는가 어느걸 우선 무슨 核으로 풀어야 되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協力·交流問題를 뭐 排除하는건 아니고 다 受容한다. 수용하는데 중요한건 뭐냐하면 이 對決을 解消해야 된다. 對決을 解消해야 交流問題가 되지 交流協力問題를 풀면 이것이 해결된다, 그거는 論理的으로도 안되고 實踐的으로도 可能性이 없는거고 그래서 우

리가 提案한 대로 이거 뭐 우리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世界 사람한테도 그렇고 마주 앉아서 이거 北과 南의 겨레들이 마주 앉은 會談에서 무슨 會談을 하고 있고 무슨 問題를 풀자는 거다 하는 게 다 이렇게 뭔가 하면 명백히 해야 이렇게 北과 南 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할데 대하여 이렇게 議程을 設定하는 것이 合理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南(宋漢虎): 나는 오늘 이 議題問題와 關聯해 가지고는 이거는 貴側의 議題와, 提案과 또 그동안의 주장, 다시 말해서 의제를 包括的인 單一案으로 해야 된다고, 뭐 政治 軍事的인 대결상태를 解消하는 問題로 해야 된다고 그 形式과 內容에서 사실 내가 貴側의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사실상 議題問題에 관해서는 우리 白團長선생이 뭐 아무런 反對없이 선뜻 呼應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욱 하는거 보니까 이 失望이 좀 크네요.

우리 사실 貴側의 主張을 거의 다 받아 들였어요. 또 貴側은 말이지요, 사실 지난번 작년 11월 16일자 便紙에서도 다각적인 交流·協力을 議題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貴側이 그동안 수없이 다각적인 交流協力이야말로 이것은 끊어졌던 民族的 紐帶를 다시 잇고 統一의 前提條件을 마련하는데서 아주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7·4 共同聲明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분명히 저 民族的 連繫를 회복하고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인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적인 諸般交流를 실시한다. 이렇게 우리 7·4 共

同聲明에 분명히 우리 南北間에 合意해 왔어요. 그럼 이것이 뭐냐, 다
각적인 交流·協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거를 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北(백남준) : 다 認定합니다. 우리는 交流協力問題 인정합니다.

南(宋漢虎) : 그러니까, 글썬 그러면, 認定한다면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討議하는 것이 또 그것을 南北總理들이 의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거야말로 두말할 것도 없이 同意해야 옳을텐데 또
그거는 안된다 꼭 政治 軍事的인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문제로 해야된다.
나 이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北(백남준) : 이거 보시요. 宋先生!

(一同웃음)

北(김영철) : 내가 좀 말하겠습니다. 지금 議題討議 들어 갔는데 참 다행스
럽게 생각합니다.

3次會談까지는 우리 首席代表先生들께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包括
的인 議題인가 單一議題인가, 말하자면 하나로 크게 정립한 包括的인 우
리 議題가 좋은가, 아니면 작게 細分化된 그쪽 議題가 좋은가 하는 問
題가 論議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의 包括的인 議題에 同意해 나옴에 대해
서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南(金保鉉) : 큰 讓步지요.

北(김영철) : 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議題를 정립하는데, 아까 名稱問題에서 두가지 原則이 있다고 얘
기했는데 議題定立에서도 역시 두가지 基準이 있습니다.

한가지 基準은 뭐인가, 問題討議에 生産的으로 效率的으로 大할 수 있게 議題形式이 되어 있는가.

둘째는 뭐인가, 역시 會談의 性格과 使命에 맞게 議題內容이 되었는가 이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처럼 우리의 包括的인 議題에 同意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基準은 合意된 것으로 됩니다.

두번째 議題內容 問題입니다. 議題內容問題를 分析해 보면 한가지 基本問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廉先生이 무슨 問題를 제기했는가, 다각적인 交流協力이 先次나, 아니면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가 先次인가 이 問題입니다. 이 問題에 대한 概念을 正確히 할 必要가 있다. 여기에선 根本問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가 南北關係 問題를 푸는데서 先次的으로 풀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先次的으로, 왜 그런가,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이여의 問題가 풀릴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南(廉弘喆) : 무슨 問題가 풀릴 수 없다고요?

北(김영철) : 政治的 對決狀態, 軍事的 對決狀態가, 똑바로 들으십시오. 이 두가지 對決狀態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問題가 풀릴 수 없다...

南(廉弘喆) : 아, 다른 問題가...

北(김영철) : 이제 제의한 交流를 우선적으로 하는 問題도 그런게 아니냐...

이 두가지 問題가 풀리지 않으면 誤解와 不信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가십니다. 이 두가지 障礙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信義있는 對話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올해에 우리 會談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對決狀態 때문에 공

전이 많았다 이기요. 또 이쪽에서 交流協力を 先次的으로 했는데 이 對決狀態가 있고 交流協력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制度的인, 軍事的인 그런 障礙에 부딪칠 겁니다.

가령 동·서해를 交流協力の 배가 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軍事的 對決狀態가 있고 배가 오고 가고 하겠소? 못해요. 先次가 뭐인가,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이 優先인가, 어느 것이 先次인가, 하는 問題를 놓고 議題를 展開해 놓고 보면 그쪽에서 그것도 첫대가리에다가 이거 보십시오. 다각적인 交流·協력과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에 대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問題點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그쪽 議題가 타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것이 사실상 간단한 問題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내 저기 박종권 先生이 저기 앉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軍事的 信賴構築이란 이런 말 썼어요. 信賴라는건 난 軍事家이기 때문에 어휘풀이는 잘 못하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을 주는 이런 말이 틀림없지요? 宋 先生, 믿음을 주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가 어떤 것인가, 나는 軍事家이기 때문에 軍事만 말하겠습니다.

南北關係를 보면 가장 첨예한 問題다. 가장 복잡한 問題다. 솔직이 말해서 南北關係에서 가장 크게 영겨있는 問題입니다. 가장 硬直되어 있고 또 이것은 솔직이 말해서 外勢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젍니다. 또 그 막말로 하면 軍事的 對決하면 철과 철이 맞부딪치고

불과 불이 오가는, 네가 죽는가 내가 사는가 하는 問題입니다.

그래 이런 對決狀態를 解消하지 않고 무슨 問題를 先次的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交流協力問題를 그대로 두고서는 다른 問題가…….

바꾸어서, 좀 노여워 하실지 모르겠는데 交流協力問題를 1次的으로 푼다. 이제 信義와 誤解를 가시는 문제다 하는 것은 交流協力問題를 풀면서도 政治的 對決狀態와 軍事的 對決狀態를 그대로 하자 하는 말과 같다. 따지고 보면 엄중하지요 말씀이, 내 지난번 會談때 염선생 말을 注意깊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말씀들이 많았어요. 내 지나갔기 때문에 改善하자고 하는건데.

南(廉弘喆): 거 또 앞에 놓고서……. 對話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셔야지.

北(김영철): 아니, 對話기 때문에 내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슨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데 무슨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건 아주 우리 對話하고 인연이 없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對話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내 두번만 말했으면 내 廉弘喆先生 같이 앉아서 對話를 못하겠소, 내 이렇게 말할라 그랬어요. 아니 이걸 다른 말이고, 그래서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 이 의제가 좋습니다. 솔직이 말해서 統一을 풀라, 統一, 어느 때든지 이 收穫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이 술한 南北關係問題를 풀어야 할때 제일 先次的으로 풀어야 할 問題가 뭐인가, 이거다. 그 고리가 풀리면 다른 고리가 다 풀릴게 뭐가 이 고리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중심고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問題點은 中核的인 問題라고도 말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놓고 보

면 先次的으로 풀어야 할 問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意見을 우리 團長이 이제 명백히 말하는 겁니다.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할데 대하여」 어떻습니까? 저 박종권 선생이 상당히 동감이 가는가 본데……. (잠시 소란)

北(백남준) : 宋先生, 그래서 이거 우리가 원래 會談의 趣旨, 또 호상 오고가는 편지를 통해서 어쨌든 당면한 이런 緊張을 緩和하고 信賴를 回復하는데 복무하는 당면한 政治 軍事的인 이런 對決을 해소하자고 하는 이 趣旨로 보더라도 이 名稱을 政治軍事 會談이라고 하면, 해소할데 대하여 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옳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에 또 交流協力問題를 다 包容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會談 처음에 마련할 때 約束한 것과는 달리 아니 交流協力問題를 갖다가서 앞대 가리에 딱 놓으면 交流協力 問題 해결되서 政治 軍事的 問題 解決되는데 성공 못합니다.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해결하면은 交流協力問題는 解決할 수 있지만은, 아니 저 뭐가 여기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과 바다에서 땅에서 뭐인가 하면 총알이 왔다가 폭탄이 건너갔다 넘어왔다 하는데, 交流協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會談의 본래의 使命에 비추어봐도 그걸 앞에 놓는게 부당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내놓은 議程이 그 自體를 包容하고 있는 거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議程대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또 좀더 意見이 엇갈리고 그래서 다 우리가 각기 자기 提案을 내놨으니까 더 研究를 하고 말이죠. 研究를 하고 다음번에 나와서 차근차근 풀어 갑시다.

南(宋漢虎) : 좋습니다.

北(백남준) :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會談은 그저, 이만하고 또 2시간 넘었는데 結束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보면 그저 오늘 會談 말입니다. 제 생각 하건데는 오늘 會談이 대단히 우리가 進展이 있고 成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宋漢虎) : 우리 기자들한테 그럼 進展있고 成果있다고 그럴까요?

北(백남준) : 아니, 그렇게 합시다. 사실인데…….

南(宋漢虎) : 合意본게 하나도 없어.

北(백남준) : 아니 왜 없어요? 왜? 우리가 그래도 3次會談때 서로 내뉘던 本會談 1次會議 場所問題도 우리가 合意를 봤지요.

北(최성익) : 큰 讓步죠.

南(宋漢虎) : 隨行員 問題도 하지?

北(백남준) : 隨行員 問題도…….

南(宋漢虎) : 30名 內外로 그냥 發表를 해버려. 그거 하나라도 뭐 있어야 그래도 .

北(백남준) : 아까 또 다음번에 더 研究해 나와 가지고 討論하자고 했는데도 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뭔가하면 사실 아까 그쪽에서 이 議程問題 包括議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거 정말 그쪽에서 우리로서는 前進的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北南關係 이거 對決이 尖銳하지 않습니까? 不信이 깊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내놓고 議程化한다고 하면 이거 세월이 부지기수죠.

그리고 또 의정이 이렇게 자꾸 헛갈리게 되면 언제 本會談이 열리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점에서 오늘 會談이 成果있다.

南(宋漢虎) :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北(백남준) : 그리고 同時에 뭔가하면 우리 호상 오늘 또 差異나는 問題에 대해서 우리도 提案을 내놨고 그다음 그쪽에서도 내놨고 그러니까, 호상 각기 立場을 이렇게 리해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이 건 우리 會談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대단히 成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南(宋漢虎) : 오늘 우리, 특히 우리의 議題問題와 關聯해서는 貴側의 形式과 內容 그걸 그대로 거의 다 받아들였으니까 가서 좀 한번 研究를 해보세요.

貴側은 또 充分한 時間的인 여유를 가지고 研究하면은 요 다음에 또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다음 날짜 어떻게?

北(백남준) : 다음 날짜, 나는 여태까지, 날짜를 내가 내놨다가 宋선생한테 한번도 이겨본 일이 없는데…….

南(宋漢虎) : 이렇게 하죠. 그럼, 대체로 우리 地域에서 하는 거니까, 12월 21일에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南(廉弘喆) : 赤十字 本會談도 있고…….

南(宋漢虎) : 本會談있고 故鄉訪問團 뭐 있고 그러고 보니까, 복잡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21일이나 돼야할 것 같은데.

北(백남준) : 근데, 그쪽에도 그럴 겁니다. 年末이 아닙니까? 연말이니까 일도 많고……. 보름쯤 되게 되면은 아마 마무리 할 것도 마무리 해야

되고 새해 事業들 計劃도 해야될 게고 우리 東方禮儀之國인데 年末이 되면 인사다니고 해야할 問題도 提起되고 여러가지 많이 제기되고 그런데 宋先生 그야말로 3次會談때 금년도에 本會談 탄생시키자고 해놨는데 아, 스무하룻날 해놓으면 한 일주일후에 설 쇠먹고 명년도에 또 늑어버리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냐하면 우리側에서는 豫見되는 事業도 있고 그래서 12월 7일날 하자.

南(宋漢虎): 12월 7일날 會談이, 차라리 12월 …….

北(백남준): 아니, 오늘도 또, 이제 …….

南(宋漢虎): 가만 있어봐, 8일부터 故鄉訪問團이 시작하죠?

北(백남준): 아 그럼요.

南(宋漢虎): 그렇지 그렇게 되면 바빠.

北(백남준):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宋선생이야 지금 요즘 뭐 國會對話 指揮하느라, 그다음에 赤十字會談 指揮하느라, 體育會談 指揮하느라 자기 혼자 생각만 자꾸하고. 이거 해야 돼. 그것도 해야지만,

南(宋漢虎): 내가 지난번에 얘길 했지만은 12월 초순에는 우리가 바빠요. 豫算國會도 있고 그러니까 12월 21일, 12월 21일날 합시다. 우리 사정도 있고 하니까.

北(백남준): 아니 4次會談 開會에서 내가 송선생한테 다 讓步를 했는데 …….

南(宋漢虎): 또 讓步하시요.

北(백남준): 오늘은 우리한테 讓步를 해야지.

北(최우진): 12월 7일날 하고 금년내에 한번 더 합시다.

北(백남준): 今年內로 豫備會談을 마무리짓지요. 우리가 좁혀야 할 問

題 .

南(宋漢虎) : 豫備會談을 마무리 짓자면서 讓步도 하나도 안하고.

北(백남준) : 讓步는 누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소란)

北(백남준) : 그래서 정 안되면……. 7日날 무슨 요일인가?

北(최우진) : 수요일 .

北(백남준) : 그런데 이주일에 우리가 이제 豫備會談 못하면 금년간 하기 어려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故鄉訪問團이 8日날 約束이 돼 있으니까 9日날 합시다.

南(宋漢虎) : 그렇게 할 수 없지, 故鄉訪問團이 이루어지는데 할 수 없지

北(백남준) : 그래서 9日날 하든가 10日날 하든가 .

南(宋漢虎) : 그러면 제가 하루는 讓步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月 20日날 하죠?

北(백남준) : 아냐, 아니 그러면 故鄉訪問團이 8日날 豫定돼 있으니까, 그러면 9日, 10日이면 금요일 일게요 아마.

南(宋漢虎) : 11日까지 故鄉訪問團이 平壤에 가 있어요. 그리고 15日부터 本會談이, 赤十字 本會談이 열린단 말야.

그러면은 14日부터 우리가 代表團이 平壤으로 가야 돼요. 14, 15, 16, 17 全部 다 平壤가야 돼요.

우리 다 계산해 가지고…….

北(백남준) : 그러면 北南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豫備會談 團長을 바꾸든가 해야지.

지금 뭔가 하면 전부 國會會談 指揮해, 體育會談 指揮해, 赤十字會談 指揮해, 자기한테만 服從하라고 하고…….

南(宋漢虎) : 그렇게 합시다. 메모도 그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一同웃음)

北(백남준) : 아냐, 스무날, 무슨 曜日입니까?

南(宋漢虎) : 20 日날, 水曜日.

北(백남준) : 21 日날…….

南(宋漢虎) : 21 日은 木曜日. 20 日, 21 日 양일중에 擇一해 가지고 …

北(백남준) : 21 日은 木曜日이예요? 木曜日입니까?

南(廉弘喆) : 21 日이 木曜日이죠.

北(백남준) : 木曜日입니까? 그러면 스무날하죠. 水曜日날 하죠.

南(宋漢虎) : 스무날, 水曜日날, 좋습니다.

北(백남준) : 내가 또 讓步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우리側만 讓步를 했구만.

南(宋漢虎) : 하여간 계속 讓步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北(백남준) : 아니, 이거 互相性인데…….

南(廉弘喆) : 작은 것은 讓步 하시고 큰걸 讓步를 안하신 단 말이에요.

우리가 議題 큰걸 讓步했는데…….

北(백남준) : 아니, 議題, 讓步입니까? 그게? 아직은 折半짜리예요.

우리 원래 1次會議를 平壤에서 해야 되는건데 서울로 정한거 우리 대 단한 讓步입니다.

南(宋漢虎) : 왔다 갔다 해야지요.

南(金三勳) : 우리 平壤으로 갈까요?

北(김영철) : 오시라요.

北(백남준) : 아니, 다시 決定하자요?

南(宋漢虎) : 자, 그럼.

〈附 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1.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 : 1989.11.15 (水) 12:50 ~ 13:03

* 場所 : 板門店 우리側地域「平和의 집」

* 發表 및 答辯 : 宋漢虎 首席代表

〈記者會見文〉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를 하셔서 꼭 會談內容과 進行經過에 대해서 다 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參考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會談에서는 北韓側이 文益煥이라든가 會談外的인 問題는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번째까지 會談이 會談과는 關聯없는 問題로 인해서 空轉되었었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節次問題에 관한 協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多幸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會談外的인 問題를 들고 나와가지고 모든것을 空轉시키고 會談에 一方的으로 障礙를 造成하다가 이제 제대로 제 페이스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節次問題에 들어가서 代表團構成問題 중에서 隨行員數를 北韓側은 30名으로 하자고 그랬고 저희는 基調發言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같이 30名内外로 하자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意見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北韓側이 이 問題에 관해서는 앞으로 가서 研究하겠다 그러고, 다음번에 이 問題를 다시 論議하자 그래서 더 이상 이 問題는 論議를 하지 않고, 會談名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시간 論議를 하였습니다.

名稱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맨 처음에 高位當局者會談이라고 하자고 했던 것이고 北韓側의 立場을 考慮해서 折衷案으로서 저희가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에 北韓側이 이 南北總理會談으로 부르자 한 것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아까 會談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80年 2月달부터 10 차례에 걸쳐서 板門店에서 南北間 總理對話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總理會談이라고 부르자고 했고 北韓側은 南北總理接觸이라고 이렇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87年 1월 11일에 北韓側이 우리보고 그때 금년에 提議했던거와 마찬가지로 南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열자 이렇게 提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南北總理會談으로 修正提議 했더니 北韓側에서 좋다,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便紙속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保障할 수 있는것이라면 會談形式에 구태여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면서 部長級, 우리측으로 말하자면 長官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豫備會談을 빨리 開催하자고 提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을 비추어 볼때 南北總理會談이라고 하자고 주장하는 우리의 主張은 너무나 당연하고 과거에 이와같이 同意했던 사실을 뒤바뀌 가지고 總理會談으로 부를 수 없다는 北韓側의 立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거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問題도 合意를 오늘 보지 못했습니다. 平壤선을 그었는데 合意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北側이 다음 節次問題에 대해서 討議하자고 해서 節次問題討議에 들어갔습니다.

成事시키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質問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質問・答辯 >

質問 : 이번 豫備會談에서 北韓側이 文益煥牧師問題와 林秀卿問題를 거론하지 않은 背景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答辯 : 우선 이때까지 사실상 그런 문제를 거론했던 것 자체가 豫備會談의 性格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豫備會談이라는 것은 總理들이 만나는데 필요한 節次問題를 論議하는 것이지 무슨 그거와 관련이 없는 林秀卿이라든가 文益煥을 거론해 가지고 是非한다는 자체가 걸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걸맞지 않는 것을 자꾸 들고 나와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內外로부터 비판을 받고 會談을 成事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評價를 받게 되니까 더이상 그걸 들고 나오면은 北韓의 對話意志에 대해서 疑心을 받고 비판을 면할 수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問題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質問 : 다른 부분은 거의다 이해가 가는데 隨行員 數와 代表團 構成問題에 관해서 隨行員 數를 우리가 30名 內外로 하자 했는데 특별한 理由가 있는 것이지요. 그 問題하고 또하나 代表團 構成에 있어서 사실 南北問題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問題가 軍縮問題라고 생각되는데 저쪽에서 軍代表를 두명 包含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한명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는지요?

答辯 : 말씀드리죠.

隨行員 數를 30名으로 하느냐 40名으로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

다가 北韓側이 지난 3次 會談때 30名으로 提示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40명으로 하다가 30名 内外로 했습니다. 내가 會談때도 이
야기 했지만은 30名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왜냐면 總理를 비롯해
서 高位當局者들이 다 가서 만나는 會談이니까 여러사람의 지원 인원
이 있어가지고 다 뒷받침을 해주어야 차질없이 원만하게 會談을
進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實務的으로 계산을 다 해보았습니다. 通信, 連
絡으로부터 의사들, 간호원들, 비서관들 이렇게 쪽 따져보니까 30名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고 35명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35명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30명 내외
로 해서 4~5명정도 신축성을 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중에 軍縮等 軍事問題를 論議하는 것이 會談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認識한 것 같습니다.

北韓側이 작년 11월 7일에 이른바 包括的인 平和方案을 내놓았
습니다. 平和方案을 내놓고 거기에 보면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
消하는 問題하고 또 韓·美·北韓 3者會談을 開催하는 問題가 있습
니다. 거기에 보면은 軍縮問題라든가 駐韓美軍撤收問題는 3者會談
에서 論議하자고 작년에 제시했던 包括的인 平和方案에는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측이 작년 11월 16일날 우리한테 편지를 보
내 가지고서 包括的인 平和方案에서 내놓은 南北間의 政治軍事的 對
決狀態를 解消하는 문제를 우리 總理會談에서 論議한다면은 軍縮問題
는 거기에서 除外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측이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에서 내놓았던 것을 몇가지 나열해 보면 中傷誹謗을 말자 혹은 相對方을 반대하는 어떤 行事を 하지 말자 多角的인 交流協力하자, 非武裝地帶를 완전히 非武裝化하자 혹은 대규모 軍事訓練을 하지 말자 이런 등등 입니다.

軍縮問題는 거기에 包含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總理가 首席代表 아니겠습니까? 總理는 사실상 國政全般을 掌管하는 職位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總理는 政治・社會・文化 이런 분야에 관해서 실질적인 權限과 責任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軍事問題도 실질적인 權限과 責任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參謀總長級 한사람의 補佐를 받으면 충분히 會談을 진행하고 북한측과 協議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軍事代表 두사람이 필요없고 한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質問: 아까 북한측에서 12월 7일날 會談을 하자고 또는 9일 하자고 그랬는데…….

答辯: 그건 제가 좀 疑心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12월 8일날 故鄉訪問團交換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날 赤十字 本會談이 開催될 예정으로 있는데 북한측은 이런 행사가, 대규모 행사가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로서도 懷疑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로 하자고 했잖습니까? 12월 9일이면 우리 故鄉訪問團이 평양에 가 있고, 북한측으로서는 서울에 와 있어야 하

는 시점인데 과연 故鄉訪問團 事業이라든가 혹은 藝術公演團 交換을 할 진정한 意思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북한의 態度를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끝마치죠.

감사합니다.

2.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89.11.15(水), 12:20 ~ 12:25
- * 場所：北側地域 「統一閣」앞
- * 發表：백남준 단장

< 記者會見文 >

오늘 우리 4次 豫備會談을 우리側 統一閣에서 가졌습니다. 오늘 會談에서는 주로 實務節次問題에 대한, 本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實務節次問題에 대한 討議를 進行했습니다.

오늘 이 4次 豫備會談은 우리가 豫備會談이 마련되서 처음으로 一定한 前進이 있었고 成果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는 이 會談의 발기측으로서 1次 本會談場所를 應當히 平壤에서 해야하지만은 南側에서 서울로 하자고 要求하는 것과 關聯해서 우리는 讓步를 해서, 그래서 本會談 1次 會談場所는 서울로 하기로 合意를 봤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우리側의 讓步라고 우리는 認定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會談에서는 議程問題를 討論하는데서 우리는 包括的인 議程問題를 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北과 南사이에 當面한 정치군사적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提案을 했고, 南側에서는 從前 3次會談까지는 여섯개 項의 細部議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南側에서는 包括議題로 할데 대해서 同意해 나옴으로써 결국 우리 豫備會談을 빨리 結束을 짓고 本會談을 誕生시킬 수 있는 이런 一定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包括議題로 할데 대해서 合意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議題內容에 대해서는 合意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北과 南사이에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提案했는데 이 우리 議程內容은 昨年 지난해 11月 16日과 今年 正月 16日에 우리側 總理가 南側 總理에게 보내는 便紙에서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問題」를 協議·解決할데 대해서 明白히 밝혔고 南側 總理도 이에 대해서 肯定的으로 呼應해 나옴으로써 우리의 이 豫備會談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應當히 北과 南사이에 當面한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包括議題로 하는 條件에서는 이렇게 議程을 設定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고 理想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認定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南側에서는 包括議題로 하는데 대해서는 同意했지만 이 議程內容을 「北南間의 交流·協力問題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問題」로 提案을 했습니다.

이것은 結局 우리가 雙方이 諒解가 되고 이 會談을 마련한 趣旨로 볼 때 이거는 應當히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問題로 單一議題로 하는 條件에서 해야 하겠는데 그 앞에다가 交流·協力問題라는 것을 앞에 놓고 그 뒤에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會談이 마련되게 된 本來 趣旨나 우리 會談의 本來 使命과도 이거는 맞지 않으며 동시에 또 政治軍事的 對決을 解消함으로써만 交流·協力問題도 이것을 解決할 수 있고 成功할 수 있는 問題입니다.

交流·協力問題를 解決하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政治的·軍事的 對決을 解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과 같으나 하면은 「칼은 칼대로 雙方이 다 차고 있으면서 交流·協力を 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論理입니다.

그러기때문에 雙方의 意見이 相互 엇갈려서 이 包括議題에 대한 內容에
서는 合意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전번 3次 豫備會談때에 雙方 隨員 數와 關聯해서 우리
는 20名이면 充分하다고 보았는데 南側에서는 40名으로 하자고 하는 이
런 條件에서 우리는 折衷해서 隨員 數를 30名으로 할데 대한 誠意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南側은 이에 一定하게 接近은 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우
리가 30名으로 할데 대해서 30名 内外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 나왔습
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30名을 提案했고 南側에서 接近해 왔지만은
30名 内外라는 이런 提案이 나옴으로써 해서 다음번에 다시 이것을 協
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이제 雙方 實務節次에서 差異로 남아있는 問題는 代表團 構
成問題인데 構成에서 軍代表를 몇명으로 하는가. 어떤 級의 軍代表를 參
加시키기로 하는가 하는 問題가 雙方의 差異나는 것인데, 우리는 北과 南
사이에 軍 指揮體系가 서로 같지 않는 條件에서 그 級은 軍 實權者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마련하려는 이 會談이 政治的인 問題와 同時에 軍事
的인 問題가 어느 하나가 次要視되거나 어느 하나가 그것이 퇴색해서는
안되는 그런 問題인 만큼 우선 代表團 7名가운데서 절반, 절반은 못된다
하더라도 軍實權者 2名程度는 代表團으로 構成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提案
할데 대해서 南쪽에서는 한명이면 充分하다고 하는 意見을 내놓았는데 오

늘 이 問題는 互相 意見도 나누어 보지 못하고 時間이 많이 갔기때문에
그래서 이 問題역시 다음번에 討論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 會談에서 重要하게 찾게 된 것은 互相 尊重하고 誠意를 가지
고 會談에 임한다면 雙方 사이에 實務節次問題 討議에서는 크게 前進을
이룩할 것이며 아무 어려움없이 妥結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찾아 보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會談날짜는 12月20日날 南側에서 하게끔 그렇게 合意
를 봤습니다. 以上입니다.

感謝합니다.